Life p/16



수능 수험표는 '할인 티켓'

metro®
메트로 2014년 11월 12일 수요일 제3093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3



삼성 첫 통합우승 4연패



APEC 정상 기념촬영 11일 오전 중국 베이징 외곽 옌치후에 자리잡은 '국가회의센터'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오얀타 우말라 페루 대통령, 박 대통령,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 엔리께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 쯔엉 떤 상 베트남 주석. 뒷줄 왼쪽부터 샤오 완 창 대만 전 부총통, 프라윳 찬-오차 태국 총리, 피터 오닐 파푸아뉴기니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토니 애벗 호주총리, 나집 라자크 말레이시아 총리, 존 필립 키 뉴질랜드 총리,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 렁 춘잉 홍콩 행정수반, 에드 패스트 캐나다 무역장관. <관련기사 2·4면> /베이징=연합뉴스

미래 먹거리 '3D 프린터' 경쟁 점화

전세계 출하량 2배 이상 증가, 2018년 230만대 전망
삼성전자 등 특별팀 구성 연구개발 발빠른 준비

#2020년. 피규어 수집이 취미인 직장인 김모씨는 요즘 3D 프린터를 이용해 취미생활과 용돈벌이 두 가지를 즐기고 있다. 3D 프린터 기술의 발달로 자신만의 장난감을 만드는데 재미를 붙였지만 피규어에 관심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면서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주문까지 들어온 것이다. 특히 최근 어린이 감성을 추구하는 어른들, 이른바 '키덜트족'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김 씨는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차세대 먹거리로 각광 받는 3D 프린터 기술이 급성장 하면서 우리 주변의 대부분 생활용품을 가정에서 자체 생산해 사용할 날도 멀지 않았다.

제3의 산업혁명으로 3D프린팅 기술이 제조업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의회 연설은 이미 세계적으로 현재진행형이 되어가고 있다.

2015년에는 전세계 3D 프린터 출하량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미국 IT 컨설팅 기관인 가트너에 따르면 전세계 3D 프린터 출하량은 2014년 10만8150대에서 2015년 21만7350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2015년부터는 3D프린터의 출하량이 매년 두 배 이상 증가해, 2018년도에는 230만대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피트 바실리에르 가트너의 리서치 부사장은 "올해 3D 프린터 시장이 변곡점에 도달하면서, 첫 발명 이후 30년 동안 미미했던 3D 프린터의 연간 성장률이 2015년부터 극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2018년 3D 프린터 판매량 추정치는 전세계 총 잠재 시장의 일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시장에서 1000 달러(한화 약 108만원) 미만의 3D 프린터 도입이 증가함에 따라 2018년까지 3D 프린터 시장을 구성하는 7가지 기술 중 '재료 압출' 기술이 3D 프린터 시장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용 3D 프린터 시장의 주요 성장 동력은 저렴한 가격, 개선된 성능, 글로벌 공급의 확장 등을 꼽았다. 신규 공급업체들이 3D 프린터 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며, 특허가 만료된 초기 기술들을 활용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저가 기기를 생산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콘텐츠를 제작하는 3D 스캐너 기술도 급속도로 성장했다. 지난 5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한 'R&D성과확산대전'에서 3D핸드헬드 스캐너·모바일 단말기 스캐너 등이 공개됐다. 해당 제품은 외산 대비 비슷한 성능을 갖췄지만 가격은 1/10 수준까지 낮췄다. 이 제품의 상용화는 내년 상반기가 될 전망이다.

이에 삼성전자 등 국내 IT 대기업들은 공식적으로 3D프린팅 사업을 선언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활발한 연구개발을 진행하며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반면 LG전자는 아직 3D 프린터 개발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3D프린팅 사업에 대해 공식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적은 없지만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내부 인력확충과 동시에 유망 벤처기업과 손잡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최하는 '2014 C-Lab 벤처창업 공모전' 후원에 나선 삼성은 공모전 주제로 3D 프린팅을 포함시켰다. 삼성은 자체 기술력 강화와 유망한 벤처기업과 손잡고 발 빠르게 대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LG전자는 차세대 먹거리인 3D 프린터에 대한 개발에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이다. LG전자 관계자는 "3D 프린터 개발과 관련해 내부에서 들은 내용이 없다"며 "현재 개발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만약 3D 프린터 산업의 성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될 경우 삼성전자와 달리 LG전자는 과거 스마트폰 후발주자로 고전했던 상황에 또다시 직면할 수 있다.

3D 프린팅 사업에 국내 IT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시장을 선점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세월호 수중 수색작업 종료

유가족 "잠수사 안전 중요"

정부가 11일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을 끝낸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오늘부로 수색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수색 종료는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09일 만이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국민 발표에서 "수색이 장기간 반복되면서 이제 실종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희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한 현장의 거듭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잠수 수색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색작업을 무리하게 계속하다가는 자칫 또 다른 희생을 부를지도 모른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의 공통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세월호 인양 등 선체처리에 관해서는 "해역 여건, 선체 상태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실종자 가족,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적절한 시점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실종자 유가족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수색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잠수사의 안전"이라며 "이 시각 이후 수중수색을 멈춰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실종자 가족들은 수중수색 활동을 중단하더라도 정부가 9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해 선체 인양 등 방법을 고민하고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준기자 mjkim@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굿바이 삼성 토크쇼 '열정락서'



기자 수첩

박 성 훈 <경제산업부 차장>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윤부근 삼성전자 사장, 이돈주 삼성전자 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 박상진 삼성SDI 사장, 전동수 삼성SDS 사장, 윤종용 삼성전자 고문….

김상헌 네이버 대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김영세 이노디자인 대표, 최종일 아이코닉스 대표,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저자 김난도 서울대교수.

삼성그룹이 3년간 이어온 토크콘서트 '열정락서'에 등장한 인물들이다. 열정락서는 삼성이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소통하기 위해 만든 공익 프로그램이다.

이 무대에서 만큼은 삼성의 '사장님'도, 유명 IT기업의 '대표님'도, 국내 일류 대학의 '교수님'도 그저 '강사'일 뿐이었다.

즉 열정락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산업계 '스타 CEO'의 지혜와 노하우 등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매개체였다.

특성화고 학생, 사회복지사, 유학생, 보육시설 청소년, 농산어촌 출신 중학생, 육군사관학교 생도 등 30만명의 관객이 국내외 20개 도시에서 80회 동안 강연을 들었다.

2011년 10월 광주에서 시작한 열정락서가 11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 콘서트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열정락서는 자칫 지루할 수 있는 토크콘서트에 유명 가수의 공연을 곁들여 감동과 재미를 동시에 선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꿈' '열정' '도전' '성공' '소통' 등을 키워드로 내세워 젊은층에게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하는 데 일조했다.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 메이저리그 LA다저스 투수 류현진 역시 '긍정의 힘'에 대해 설파했다.

대기업도 충분히 일반인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열정락서. 어디서 무엇이 돼 다시 만날 지 벌써 기대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사자방' 국조 추가 논의

여야는 11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양당 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특별법 후속 조치 배·보상 문제는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즉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민생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여야가 합의한 법률을 우선 처리하고, 이를 위해 양당 수석 회의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는 여야가 계속 논의한다"며 "'사자방' 국조 문제는 더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조현정기자

뉴스&뉴스

北 요청에 에볼라 검역 장비 개성공단에 설치

● 정부가 북한의 요청에 따라 개성공단에 에볼라 바이러스 검역 장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북측 통행검사소가 지난달 29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에볼라 바이러스 검역 장비 지원을 요청해왔다"며 "정부는 입주 기업 주재원의 출입경 불편 해소와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북측 통행검사소 입경동에 거치식 열감지 카메라 3대를 조만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국군사이버사 독립청사 신축 추진

● 국방부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독립청사를 오는 2016년까지 신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국군사이버사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신청사 규모는 1만3160평(4만3504㎡)으로 소요 예산은 717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치 성향의 댓글을 게시해 논란이 된 사이버사의 외연 확대에 부정적인 반응이어서 국회 국방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육군, '식물인간 이등병' 사건 의혹 재수사

● 육군은 입대 후 자대 배치 19일 만에 쓰러져 1년 7개월간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최근 깨어난 15사단 구모 이병과 관련, 군대 내 구타 의혹에 대한 재수사 방침을 밝혔다.

육군 최용한 공보과장은 11일 "재수사를 통해 가족들이 주장하는 (구타) 의혹을 명확히 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 '화기애애'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1일 오후 중국 베이징 외곽 옌치후의 '국가회의센터'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태자유무역지대>

FTAAP 베이징 로드맵 채택

APEC 회의 폐막…한미 정상 "北 비핵화 공동 노력"

베이징에서 열린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강력히 추진 중인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구축 구상의 로드맵이 정식으로 채택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1일 오후 베이징 외곽 옌치후 국제회의센터에서 APEC 정상회의 폐막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참가국 정상들)는 아·태 자유무역지대 프로세스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각국 정상들은 'FTAAP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비준하고 FTAAP 건설을 위해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에 착수키로 했다.

또 FTAAP와 관련해 자국 장관들에게 구체적 행동을 지시하기로 했으며 공동 '전략연구'를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작해 2016년 말까지 연구성과물을 도출키로 했다.

중국은 FTAAP가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이란 점을 부각시키고자 FTA 협상 용어인 타당성 조사를 포함하고 싶어했지만, 미국 등이 난색을 보이면서 한 단계 격하된 '전략연구'란 문구로 절충된 것으로 알려졌다.

폐막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20여분간 정상회담을 했다. 지난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포함해 취임 이후 4번째 회담이다.

양국 정상은 북핵문제와 관련, 국제사회의 단합된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비핵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에볼라 바이러스의 위험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박 대통령은 바이러스 퇴치 등을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을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與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 일단 실패

당내 반발로 추인 못받아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내놓은 혁신안이 11일 당내의 반발에 부딪힌 끝에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는데 일단 실패했다.

김문수 보수혁신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위원회가 지난 9월 29일 본격 출범 이후 내놓은 각종 혁신안을 소속 의원들에게 처음으로 공식 보고했다.

혁신위가 보고한 혁신안은 ▲체포동의안 개선(영장실질심사 자진출석, 체포동의안 계류 72시간 경과 시 자동 가결, 체포동의안·석방요구안 기명투표 전환) ▲정치인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적용 추진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동결 ▲국회의원 겸직금지 대상 확대 추진과 국회 윤리특위 강화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를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에 맡기는 방안 등 총 9개 안이다.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 의원총회에서 혁신안을 보고하고 나서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는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해 100명 안팎의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모두 15명이 발언에 나서 3~4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우려와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역 의원들에게 민감한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와 '무노동 무임금'을 골자로 한 세비 혁신안에 불만이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의총에서 "오늘 발표는 혁신을 위한 첫 단계이기 때문에 지켜봐 달라"며 의견수렴을 위한 의총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혁신은 아픈 것이고 힘든 것이라는 공감대를 이뤘다"며 "혁신안은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우리 당이 먼저 발의해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초 혁신안 가운데 일부는 의총에서 추인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있었지만 이날 추인은 일단 물건너갔다. 그러나 혁신안에 대한 반대가 '기득권 사수'를 위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 없지 않다. /조현정기자

밤 11시엔 잠자리 들어라

수능 D-1 체크포인트

8년만에 한파 전망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결전에 앞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최종 마무리할 점과 시험장에서의 체크포인트를 정리했다.

수능 전날에는 11시쯤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거나 족욕을 해 숙면을 취하도록 한다.

신분증, 수험표 등 수능 당일에 가져가야 할 준비물은 미리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개인용 샤프펜슬, 휴대전화, 전자시계 등 고사장 반입 금지 물품이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잘 살펴야 한다.

컴퓨터용 사인펜은 고사장에서도 나눠 주지만 만약을 대비해 여분을 챙겨두는 것이 좋다.

수능 당일 아침 식사는 밥으로 하는 것이 좋다. 수분을 많이 섭취하면 화장실에 자주 가고 싶어질 수 있으므로 국과 물은 적당히 먹는다. 두뇌회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초콜릿을 간식으로 준비해 쉬는 시간에 조금씩 먹으면 좋다.

1교시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잘 준비한다. 안 좋은 결과가 다음 교시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쉬운 문제를 먼저 풀고 어려운 문제에 시간을 끌지 않는다. 쉬는 시간에는 오답을 맞춰보기 보다는 다음 교시를 준비하도록 한다.

한편 수험생들은 당일 아침 추위에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수능 예비소집일인 12일에는 우리나라를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아침까지 비가 올 전망이다.

12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돼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수능 당일인 13일 아침 최저기온이 전라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에 머물러 8년만에 한파가 찾아올 전망이기 때문이다.

/유주영기자 boa@metroseoul.co.kr



외국인 전용 제주황금버스 운행 황금색의 외국인 전용 시티투어 버스인 제주황금버스의 운전기사와 안내원들이 11일 제주웰컴센터 주차장에서 열린 시승에 앞서 손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제주황금버스는 이날부터 3년간 제주시 시가지를 운행한다. /연합뉴스

사이버 금융범죄 '파밍' 가장 많아

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사이버 금융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1009건을 수사해 1395명을 검거하고 이중 30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검거된 금융범죄 사범은 범죄 유형별로 '파밍'(Pharming)이 1246명으로 가장 많았다.

파밍은 피해자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에 악성코드를 심어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에 연결되도록 해 금융정보를 알아내고서 돈을 빼내는 범죄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은행 등 가짜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하게 하고는 개인 금융정보를 빼내는 수법의 '피싱'(Phishing) 사범은 108명이었다. 그 다음으로 '스미싱'(Smishing) 사범이 24명, '메모리 해킹'은 17명이었다.

스미싱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인터넷 주소(URL)를 보내 악성앱을 설치하고 소액을 결제하게 하는 범죄다. 메모리 해킹은 컴퓨터를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시켜 피해자가 정상적인 은행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뱅킹을 할 때 계좌번호와 금액을 바꿔 전혀 다른 계좌로 돈이 넘어가도록 하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이다. /유주영기자

'학교안전지도사' 취득 교사 가산점

2016년부터 가칭 '학교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교원에 대해 임용 및 승진에서 가산점이 부여된다.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분야 안전종합 대책'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우선 2016년부터 체육과 보건 등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전공과목에 안전교육 내용을 강화하거나 안전 과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교·사대 학생들은 재학 중 두 차례 이상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을 해야 하고, 이 같은 내용이 교사자격취득 검정 기준 등에 반영된다. 특히 교육부는 내년에 신설되는 '학교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임용고사와 승진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학교안전지도사는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구급·재난 관련 이론·실기·면접 시험을 실시해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공인 자격이다. /유주영기자



수색현장 철수하는 잠수사들 정부가 '세월호 수색 종료'를 선언한 11일 오후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 수색현장에서 철수하는 민간잠수사들이 경비정에서 잠수장비 등을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선장 '살인 무죄', 기관장 '살인 유죄'

징역 36년·30년 선고…나머지 13명은 5~20년 형

법원이 지난 4월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이준석(68)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살인 혐의와 관련 이 선장에게는 무죄를, 기관장 박모(53)씨에게는 유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선장에게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장임에도 불구하고 복원력이 약한 위험한 선박에 대한 시정조치의 노력이 없었다"며 "특히 사고 뒤 적절한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형 선고의 배경을 밝혔다.

이 선장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와 세월호가 맹골수도를 운항하는데 있어서의 직접 지휘의무는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재판부는 기관장 박씨에 대해서는 살인죄는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사실이 아니고 세월호 사고 당시 눈앞에서 추락해 크게 다친 조리부 승무원 2명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1등 항해사 강모(42)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2등 항해사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씨는 징역 7년을, 나머지 조타수 2명과 기관부 승무원 6명 등 8명은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정우기자 cyclone@

새집증후군 유발 자재 5종 사용금지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오염물질을 기준치보다 많이 내뿜는 실내 건축자재 5개 제품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용금지된다.

5개 제품은 스톤픽스 석재용 에폭시 KSL1593 Type(접착제), 제비표페인트 KCI 프로아 #500 No.19 오텀 그린(페인트), 파텍스 PL60(접착제), 돼지표본드 D5250(접착제), 포인트디자인시트 DPS-7(일반 자재) 등이다.

환경부는 유통 중인 실내 건축자재 50개 제품에 대해 오염물질 방출량을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사용제한을 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5개 제품은 앞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인 지하역사, 430㎡ 이상 어린이집, 대규모 점포 등 21개 다중이용시설군을 비롯해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학교에서 사용할 수 없다. /유주영기자

생보재단·LG전자, 저소득 노인 지원금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시형)과 LG전자는 11일 서울 서초구립양재노인종합복지관에 저소득 어르신 겨울나기 지원금 825만원을 전달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유석쟁(맨왼쪽) 전무와 LG전자 CTO연구지원실 조규완(오른쪽두번째) 실장이 서초구립양재종합노인복지관에 '저소득 어르신 겨울나기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지원금은 생명보험재단에서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100일동안 직장인 대사증후군 예방사업으로 추진했던 '건강나눔 도심걷기' 프로젝트에서 최고 감량을 한 LG전자팀의 시상금이며, 시상금 1650만원 중 50%이다.

기부금은 양재지역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목도리, 핫팩, 수면양말, 쌀 등으로 구성된 키트(Kit)를 제작하여 보급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총 8개 기업 20개 팀(총 100명)이 참여해 100일 동안 8700만 걸음을 걸어 총 405kg을 감량했다.

생명보험재단 유석쟁 전무는 "건강나눔 도심걷기 프로젝트의 시상금 중 50%를 선뜻 기부해주신 LG전자에 다시한번 감사드린다"며, "이번에 마련한 겨울나기 키트가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주영기자


Nicaragua tendrá el primer Festival de Aves

Educación ambiental

¿Querés aprender más sobre aves?

"La Gran Sultana", Granada, será la sede del primer Festival Internacional de Aves en Nicaragua, que tiene como objetivo promover la educación ambiental en la población, proteger especies de flora y fauna.

También se pretende apoyar el turismo rural comunitario y posicionar Granada y por ende el país como sitios de destinos para los aviturístas. El "birdwatching" u observación de aves se hace especialmente en áreas rurales y actualmente es una de las tendencias en crecimiento del turismo naturalista a nivel internacional. Si querés unirte a esta aventura, visitá la página: nicaraguabirdfestival.org y en Facebook como Festival Internacional de Aves. METRO

Fecha

7 al 9

¿Por qué Granada?

Riquezas naturales

Granada es la sede porque, además de historia y cultura, tiene riqueza natural en las Reservas Naturales Laguna de Apoyo, Volcán Mombacho, Lagunas de Mecatepe y Parque Nacional Archipiélago de Zapatera, que poseen distintos ecosistemas acuáticos y terrestres, que son el hábitat para las 250 especies de aves identificadas en esta zona.

'짹짹짹' 새 좋아하세요?

metro Nicaragua

희귀조류 등 관찰 축제

천혜의 자연 환경으로 유명한 니카라과에서 제 1회 '세계 새 페스티벌'이 개최됐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이 행사는 니카라과 수도 마나과의 동남쪽에 위치한 그라나다에서 열렸다.

니카라과는 1992년 리우 데자네이로에서 '생물 다양성 협약'에 가입한 이후 환경 보존 정책과 행사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희귀조류 등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시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라나다는 풍부한 자연 환경을 갖춘 곳으로 유명하다. 아포요 호수와 몸바초 화산, 사파테라 국립공원이 어우러져 다양한 생물종의 보금자리 역할을 한다. 총 250종의 조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리=조선미기자

폐가가 '대마초 경작지'

metro France

온실 등 최대 규모


Tremblay-en-France : un millier de plants de cannabis découverts dans une villa abandonnée

SAISIE - Un millier de plants de cannabis ont été découverts samedi soir par des policiers de Seine-Saint-Denis dans une villa abandonnée de Tremblay-en-France.

프랑스 북부의 한 폐가에서 대규모 대마초 경작지가 발견됐다.

지난 8일 생상드니 지역의 공무원이 대규모 대마초 경작지를 발견했다. 프랑스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대마초 재배지 중 가장 큰 규모다. 수사를 맡은 검사는 "집안의 불빛을 본 한 이웃이 그 집에 강도가 들었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경작지엔 불법 대마초 온실과 수천 그루의 대마초가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남성은 도주를 시도했지만 체포된 상태다.

한편 이번 사건을 맡은 경찰은 대마초 불법 거래에 연루된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마리 리안 기자 · 정리=정주리 인턴기자

日 아베 부인 중국서 '무안'

문화체험하던 학생들 "시대에 뒤떨어졌네요"

"시대에 뒤떨어졌네요."

중국 학생들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사진) 여사에게 이 같이 말하며 무안을 줬다고 11일 환구시보 등이 보도했다.

아키에 여사는 남편인 아베 총리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이다. 10일 아키에 여사는 일본 국제교류기금 베이징문화센터를 찾아 일본 문화체험 활동을 하는 중국 학생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아키에 여사는 "일본의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느냐"고 중국 학생들에게 물었다. 이에 학생들은 "드라마에 관심이 많다"고 답했다. 아키에 여사가 "어떤 드라마냐"며 관심을 보이자 학생들은 '히루가오'라고 했다.

학생들의 답변에 아키에 여사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히루가오가 올해 일본에서 불륜을 소재로 방영돼 인기를 끈 드라마이기 때문이다.

이어 아키에 여사가 "나는 지난해 방영된 드라마 '한자와 나오키'를



보고 있다"고 하자 학생들은 "너무 시대에 뒤떨어졌네요"라고 말했다. 아키에 여사는 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애써 웃어 넘겼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과거사 문제 등으로 사이가 껄끄러운 양국 정상은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회담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푸틴의 자상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야외 행사에서 중국의 '퍼스트레이디'인 펑리위안 여사에게 담요를 덮어 주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IS 지도자 사망설 확산

이라크 정부 "부상이다"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지도자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43)의 사망설이 확산되고 있다. 사실일 경우 IS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BBC 등 10일(현지시간)자 외신에 따르면 전날 이라크 정부는 알바그다디가 미군의 공습으로 다쳤다고 밝혔지만 일부 현지 매체는 그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알바그다디는 IS가 이라크와 시리아의 상당 지역을 점령한 뒤 독립국가를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는 자신이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예언자 무함마드의 후손이라며 민심을 움직였다.

특히 알바그다디는 지난 6월 IS가 칼리프 국가 설립을 선포하기 1년 전부터 칼리프처럼 행동했다. 칼리프는 정치·종교 권력을 가진 이슬람 제국의 최고 통치자다.

알바그다디를 칼리파로 내세운 전략 덕분에 IS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산됐다고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분석했다.

이슬람 문제 전문가들은 알바그다디가 사망했을 경우 IS가 그의 공백을 메울 후계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치·종교 권력을 함께 행사할만한 마땅한 인물이 없기 때문이다. /조선미기자

미국 중북부 '눈폭탄' 미네소타 최대 42㎝

미국 중북부 지역에 첫 폭설이 내렸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미네소타, 위스콘신, 미시간주 일대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눈이 수북이 쌓였다.

눈이 가장 많이 온 곳은 미네소타 중부의 세인트 어거스타시다. 42㎝가 넘는 눈이 쌓였다.

이로 인해 지역 공항이 일시 폐쇄되고 출퇴근길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10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한 소년이 스키 고글을 쓴 채 등교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위스콘신주 북서부에도 36㎝의 눈이 내렸고, 미시간주 북부에도 23㎝가 넘는 눈이 쏟아졌다.

/조선미기자

독선·성실·성격 급한 사람이 성공



이국명 기자의 취업토크

'1만 시간의 법칙' 말콤 글래드웰

세계적인 성공 기업가 분석 '1만 시간' 보다 욕망 중요 잡스도 '빨리빨리'로 대업





'매일 3시간씩 10년 동안 한 가지 분야에 투자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너무나 유명한 말콤 글래드웰의 '1만 시간의 법칙'이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아웃라이어'를 통해 소개된 이 법칙을 따라 하기 위해 적성에 맞지 않고 벌이도 시원치 않은 분야에서 묵묵히 땀을 흘리는 젊은이들이 많다. 하지만 1만 시간만 투자하면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 노력한 시간이 실력의 차이를 결정짓는 비율은 음악 스포츠 체스에서 20~25%, 학술분야는 4%에 불과하다는 잭 햄브릭 미시간주립대 교수의 최근 연구결과까지 나와 이같은 의문은 점점 커지고 있다.

◆특수 분야만 '1만 시간' 통해

지난 7일 강연문화기업 마이크임팩트와 어학교육그룹 파고다교육그룹이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진행한 '더 원 토크(The One Talk)'에서 만난 글래드웰은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한 일반인들의 오해가 크다고 강조했다. 모든 분야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이 통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단거리 선수와 같은 직업에서는 '1만 시간의 법칙'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마크 주커버그도 페이스북을 만들 때 1만 시간을 쓰지 않았죠. '1만 시간의 법칙'은 많은 연습과 준비가 필요한 특수한 분야에서 마스터(Master)가 되기 위해서는 정교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성공법칙은 없을까. 글래드웰이 이날 소개한 비결은 성공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여겨졌던 독선, 성실함, 급한 성격이다. 세계적인 혁신을 일으킨 기업가들의 성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공통점을 찾아냈다는 설명이다.

"세계 최초로 컨테이너 시스템을 도입해 해양 운송의 패러다임을 바꾼 사업가 말콤 매크레인은 실패할 것이라는 주변의 비난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상상을 반드시 실현해 보이겠다는 생각으로 강하게 밀고 나갔죠. 남들의 이야기를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밀고 나가는 독선과 성실함이 그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글래드웰은 거대 가구업체 '이케아'의 창업자 잉그바르 캄프라드 사례도 언급했다. 다른 사람의 비난을 의식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조립하는 창의적인 생각을 밀어붙인 캄프라드의 독선과 성실함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케아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잡스의 성공비결은 급한 성격

'빨리 빨리'로 표현되는 급한 성격은 어떻게 성공법칙에 꼽혔을까.

글래드웰은 "성공하는 사람의 성향을 분석해 보면 욕망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며 "뭔가 해야 할 일을 발견했을 때 결코 내일로 미루는 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글래드웰은 애플의 창업자인 고 스티브 잡스가 이같은 급한 성격 덕분에 엄청난 성공을 일궜다고 소개했다. PC 등에서 사용하는 마우스도 처음 개발한 곳은 제록스이지만 정작 마우스의 성공 열매를 따먹은 것은 잡스라는 설명이다.

"제록스의 연구실을 방문하던 중 마우스를 본 잡스는 바로 컴퓨터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사무실로 달려가 기존의 연구를 뒤집고 마우스를 사용한 컴퓨터 맥킨토스를 만들어냈죠.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잡스가 마우스를 처음 개발한 것으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글래드웰은 이같은 성공법칙이 세계적인 기업가에게만 통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천재가 아닌 일반인들도 남들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원하는 것을 바로 해야 하는 성격을 갖춘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산업혁명·IT혁명 등도 똑똑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에 대한 강한 욕망을 발산한다면 엄청난 혁명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기아차, 전국 18개 드라이빙센터 가동 기아자동차가 전국 18개 드라이빙센터 구축을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기아차 드라이빙센터는 현재 서울 강남, 부산, 일산, 인천, 대구, 울산 지역 등 영업거점 10곳과 서울 강서, 수원, 대전, 광주, 포항 등 정비거점 8곳에 구축해두고 있다. /기아차 제공

학벌보다는 전공이 중요

입사자가 꼽은 취업 비결

학벌보다 전공이 취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는 최근 2년 내에 취업에 성공한 직장인 605명을 대상으로 '취업에 가장 도움이 된 요인'을 설문한 결과, '전공'(37.7%)이 1위에 올랐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면접(28.4%) 학점(18.8%), 출신학교(18.7%) 대외활동 경험(16.0%) 순으로 취업 성공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집계됐다.

'전공'이 취업에 가장 도움이 됐다는 응답률은 이공계 출신이 44.3%로 인문사회계 전공자 34.1%에 비해 10.2%포인트 높았다. 전공을 살린 비율은 이공계 출신 직장인이 85.4%로 인문사회계 전공자 53.4%보다 월등히 많았다.

한편 전공별로 필요한 직무 능력도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공계 출신 직장인들은 '데이터의 객관적 이해력과 분석력'(27.8%)이 중요하다는 답변을 가장 많이 했다.

인문사회계 전공 직장인들은 '꼼꼼함과 세심함'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24.9%로 제일 높았다.

/장윤희기자 unique@

외국어1위 영단기의 인재양성서비스 '취업단기'가 함께하는 생생한 취업Q&A

입사 이후 상황 질문 받으면 합격 예감

Q 이번 면접 예감이 좋은데 정말 합격일까요?

A 면접은 쉽게 당락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면접 보고 나서 느낌이 좋다고 말한 친구들 중 아쉽게도 떨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면접관의 멘트로 합격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지원자가 들어오면 어떤 부분을 발전시킬 수 있겠는가?',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파트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등 입사 이후의 일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을 질문한다면 긍정적입니다. 합격해서 함께 일한다는 가정 하에 미래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면접에 합격하기 위한 몇 가지 팁도 알려드립니다. 면접은 준비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면접 전에 예상 질문과 나만의 모범답안을 미리 작성해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면접관 앞에서 작성한 모범답안을 줄줄이 외워 나열하듯 내뱉는 것도 안됩니다. 외운 것에 집착하면 너무 짜여진 티가 나고, 혹시 긴장해서 중간에 답변이 꼬이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예상 질문에 답을 만들어 수없이 연습하면서 충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 면접에서는 항상 지원자의 경험이나 사례에 대해 묻는데, 무조건 그럴싸한 답변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경험을 통해 회사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개인의 경험이 회사에 어떤 강점으로 작용할 것인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면접은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같은 분야에 지원하는 취업준비생들과 함께 준비하면 긴장감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단토론면접이나 PT면접 등 지원하는 회사의 면접 유형에 따라 맞춤식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취업단기(www.engdangi.com/job) 제공

정리=이국명기자

market index <11일>

코스피	1963.00	(+4.77)
코스닥	545.13	(+5.91)
금리(국고채 3년)	2.18	(+0.06)
환율(원·달러)	1095.60	(+10.50)



'500원 배추' 등 반값 판매 홈플러스는 1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배추 1포기당 1000원에 판매하고, 5만 원 이상 구매한 패밀리카드 소지 고객에게는 배추 1포기를 500원에 살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한다. /홈플러스 제공

카톡으로 하루 최대 10만원 주고받아

'뱅크월렛카카오' 서비스 시작… 송금 수수료는 당분간 면제

카카오톡으로 하루 최대 10만원씩 주고 받을 수 있게 됐다.

다음카카오는 금융결제원과 함께 16개 은행 공동으로 뱅크월렛카카오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뱅크월렛카카오는 별도 앱으로 제공되며 충전형 선불카드인 뱅크머니와 모든 은행에서 발급하는 현금카드를 등록할 수 있다. 뱅크월렛카카오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뱅크월렛카카오를 이용하면 돈을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 없이도 카카오톡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듯 하루 10만원 한도 내에서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이같은 송금기능은 각종 회비, 경조사비, 음식값 나누어내기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비스 초기에는 뱅크머니 받기 한도를 1일 50만원, 충전 한도는 최대 50만원까지로 제한한다. 보내기 수수료는 일정 기간 면제다. 다음카카오는 뱅크머니 받기 한도를 참가 은행들과의 협의를 거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뱅크월렛카카오로 송금뿐 아니라 온·오프라인 가맹점 결제도 할 수 있다.

모바일 지갑 결제는 온라인 가맹점인 카카오선물하기, 알라딘, 한샘몰에서 사용 가능하다. 오프라인 가맹점의 경우 뱅크머니는 CU, 모바일 현금카드는 이마트, 세븐일레븐, 신세계백화점, AK백화점 매장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뱅크머니는 특정 은행 하나의 계좌를 연계 등록해 사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현금카드는 은행에 상관없이 최대 25장까지 등록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만 14세 이상 인터넷 뱅킹에 가입한 스마트폰 소지자로 제한된다. 스마트폰 명의가 본인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소유자 본인 확인이 어려운 법인폰과 일부 알뜰폰에서는 이용할 수 없으며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뱅크머니 받기만 가능하고 보내기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뱅크월렛카카오의 모든 금융거래는 금융권 플랫폼 내에서만 처리된다. 은행과 금융결제원은 모든 금융거래 처리와 충전 잔액관리를 담당하고,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 플랫폼을 금융권 플랫폼에 연동하는 메신저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스미싱 방지를 위해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는 뱅크머니 송금 메시지에는 카카오톡 플랫폼에서만 보낼 수 있는 카카오 인증마크가 부착된다.

다음카카오와 금융결제원은 "뱅크월렛카카오는 송금, 결제, 현금카드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차세대 스마트 지갑 서비스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선사한다"며 "높은 편의성과 보안성, 범용성을 통해 국내 모바일 금융 서비스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현대·기아차, 6700억원 자사주 매입 현대차와 기아차가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이후 두 업체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11일 서울 종로구 한 금융정보회사 모니터에 현대·기아차 주가가 표시되어 있다. 지난 9월 한전부지 매입 이후 주가 급락으로 고전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각각 4500억원어치와 2200억원어치의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 부양에 나섰다. /연합뉴스

삼성 인쇄물 사보 역사 속으로



인쇄물 형태의 사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몇 안되는 인쇄물 사보 중 하나인 삼성의 '삼성앤유(samsung&u)'가 11·12월호를 마지막으로 폐간한다.

삼성그룹은 11일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게 일상화가 된 만큼 인쇄물에만 소개하기 아쉬운 좋은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옮긴다"고 전했다.

이어 "인쇄비를 줄이는 차원이 아니다. 동영상 콘텐츠가 들어가면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의 인쇄물 사보는 삼성그룹 블로그에서 웹진(웹+잡지) 형태로 변신한다.

삼성그룹은 2009년부터 사내보 '삼성저널'과 사외보 '함께 하는 사회'를 통합한 삼성앤유를 격월로 발간해왔다. 발행 부수는 한 호당 19만 부.

삼성 계열사와 임직원에 대한 정보를 주로 다루지만 '피겨 여왕' 김연아,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성악가 조수미, 메이저리거 추신수,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중국 영화배우 탕웨이, 허영만 화백, 가수 조용필, 영화감독 임권택, 발레리나 강수진 등 유명인사와 인터뷰도 실어 가독성을 높였다. /박성훈기자 zen@

전세 10% 평균보다 비싸

매매가 약세 속에 전세 선호현상이 지속되면서 서울 아파트 10곳 중 1곳은 평균 매매가 보다 전세가가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 시세 기준 서울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총 121만5349가구의 평균 매매가는 5억2749만원으로 이보다 전세가가 비싼 가구수는 13만2009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가구의 10%를 차지하는 수치로 2009년 2만1028가구 보다 11만981가구가 증가했다.

2009년 이후 5년 동안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보다 비싼 전세가구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2009년 서울 평균 매매가는 5억8789만원으로 이보다 비싼 전세가구수는 2만1028가구였다. 2010년에는 평균 매매가가 5억7729만원, 전세가구수는 3만1746가구였다. 2011년에는 서울 평균 매매가가 5억7486만원이었고 이보다 비싼 전세가구수는 5만3613가구, 2012년에는 평균 매매가 5억4295만 원, 전세가구수 6만3898가구, 2013년에는 평균 매매가 5억3022만원, 전세가구수는 9만307가구였다.

/김두탁기자 kimdt@

이통3사 先보상 프로그램 "혜택은 글쎄…"

"휴대전화를 구매했는데 마치 '내 꺼인 듯 내꺼 아닌' 느낌이 드네요."

이는 한 이동통신사 선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휴대전화를 구매한 고객의 발언이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최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고객 혜택 강화의 일환으로 나란히 선보상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SK텔레콤은 '프리클럽', KT는 '스펀지 제로플랜', LG유플러스는 '제로클럽'을 각각 출시, 운영 중이다.

이들 선보상 프로그램은 애플의 '아이폰6'·'아이폰6 플러스' 출시와 함께 이뤄졌다. 이 때문에 LG유플러스의 제로클럽에 적용되는 단말은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에 한정된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갤럭시노트4와 갤럭시S5 광대역 LTE-A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이 같은 선보상 프로그램은 이번에 새로 구매하는 아이폰6나 아이폰6 플러스를 18개월 후 반납하는 조건으로 미리 신규폰의 중고가격을 할인받는 것이다. 18개월 뒤 단말기를 반납하지 않으려면 보상받은 금액을 12개월 할부로 납부하면 된다.

당장에 선보상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고객들은 단말기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18개월 후 새 단말기를 구매하거나 선보상 받은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선보상 금액도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다. 아이폰6 16GB를 기준으로 이통3사 모두 34만원의 선보상 금액을 책정했다. 비록 아이폰6의 출고가가 아이폰5S에 비해 낮게 책정됐지만 아이폰5S가 국내에 출시된지 1년이 지난 현재 40만~50만원대의 중고가를 형성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선보상 금액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물론 18개월 후 중고가가 선보상 금액보다 높다고 판단한다면 이용자는 단말기를 중고시장에 판매하고 선보상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 이마저도 다소 본인이 직접 발품을 팔아 중고시장에 합당한 가격을 받아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단말기의 고장이나 분실 등이 일어날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실제 이통3사는 18개월 뒤 선보상 프로그램 가입자의 모든 단말기를 반납받는 것은 아니다. 단말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외관상 큰 흠집은 없는지 판단 후 수거하기 때문에 단말기에 문제가 있다면 결국 18개월 후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최근 아이폰6를 구매한 한 고객은 "과연 이번 선보상 프로그램이 소비자에게 얼마나 혜택이 주어지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민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금융권도 수능 수험생 응원 열기

입시설명회·경제교실 준비·등록금 할인이벤트 등 다양

오는 13일 열리는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금융권에서도 수험생을 위한 응원 열기가 뜨겁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의 은행들은 수능 당일 영업시간을 기존보다 1시간 늦춰 오전 10시부터 시작키로 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역시 평소보다 1시간 미뤄진 오전 10시에 개최된다.

이른 아침 등교하는 수험생의 원할한 교통 소통을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은행과 카드사는 수험생을 위한 이벤트도 실시한다.

지난달 우수고객 자녀 500명에게 행운의 상징인 네잎클로버 책갈피와 핸드크림을 전달한 대구은행은 수능 당일 새벽, 지역 학교를 방문해 교문응원을 펼칠 예정이다.

시험이 끝난 주말에는 수험생과 부모를 초청해 영화관람권도 지급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수험생과 가족을 위해 입시설명회와 예비대학생을 위한 금융경제교실 등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카드 역시 대입 수험생 자녀를 둔 고객을 대상으로 '2015 대학 입시 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11월 20일 오후 1시반부터 성균관대학교 새천년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우리카드 고객이라면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설명회는 국내 온라인 교육 사이트인 메가스터디의 남윤곤 입시전략연구소장의 강연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된다.

강연은 '2015년 수능 가채점 결과 분석과 배치표 활용법'과 '2015년 정시 합격 최종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참석한 고객들에게는 2015 대학 입시자료집과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 등이 증정된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대학입시 설명회는 콘서트, 뮤지컬 등 기존 문화행사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고객의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 중의 하나"라며 "국내 최고의 입시 전문가를 초빙한 만큼 수험생을 둔 고객들께 가장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카드는 수능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을 위해 대학 등록금과 패밀리레스토랑 할인 등을 지원하는 '수능 맞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대학 등록금 행사는 KB국민카드(KB국민 기업카드, KB국민 선불카드 제외)로 30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등록금은 캐시백 형태로 제공되며, KB국민카드는 모두 2015명을 추첨해 1등(5명) 등록금 300만원과 2등(10명) 등록금 150만원, 3등(2000명) 포인트리 1만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매주 토요일에는 패밀리레스토랑과 대형마트 등에서 할인 혜택도 준다.

고객은 행사 응모 후 KB국민 체크카드(KB국민비씨플러스카드, KB국민 기업체크카드, KB국민 프리패스카드 제외)로 결제 시 패밀리레스토랑, 대형마트, 커피전문점, 제과·아이스크림점에서 1일 1회씩, 최대 1만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12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며 행사 응모는 KB국민카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하면 된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하나·외환 통합 명칭 '하나은행' 유력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 브랜드가 '하나은행'으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11일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열린 '모두하나데이'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통합은행의 이름에 '하나'는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합은행 브랜드는 외부 전문가와 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면서도 "통상적으로 통합 이후 존속법인을 주면 브랜드는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과거 신한·조흥은행 통합 때 존속법인은 조흥은행으로, 통합 브랜드는 신한은행으로 한 것과 하나·서울은행 통합 때 존속법인은 서울은행으로, 통합 브랜드는 하나은행으로 정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

한편 하나금융은 예정대로 이달 중 금융당국에 통합법인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김민지기자 minji@

생보協, 18일 차기회장 선임 첫 회의

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의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생보협회가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인선 작업에 돌입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협회는 이날 이사회에 참여하는 9개 회사에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 구성을 위한 안건을 서면 부의하고 오는 18일 첫 회추위를 열 계획이다.

이사회사는 삼성·한화·교보·농협·신한·미래에셋·동양·ING·흥국생명 등이다.

회추위 구성은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상위 3사 3인, 나머지 이사사에서 2명, 외부인사 2명 등 총 7명이다.

차기 회장 유력후보로는 이수창 전 삼성생명 사장과 고영선 교보생명 부회장간 경합속에 신은철 한화생명 고문, 신용길 전 교보생명 사장도 거론되고 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연 8.00% ELS 등 8종 상품 판매 KDB대우증권은 11일부터 사흘간 ELS 6종, ELB 1종, DLS 1종등 8종 총 570억원 규모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최소 100만원부터 100만원 단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대우증권 제공



지난 10일 이순우(왼쪽 여섯번째) 우리은행장이 국내은행 최초로 진출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사무소 개소식에서 현지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제공

국내 은행, 러시아 진출 속도 낸다

우리銀, 블라디보스톡에 사무소 개설

국내 은행들이 러시아로 '금융영토'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동남아 시장에 이어 러시아까지 글로벌 영토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영토와 에너지 자원 부존량을 자랑한다. 인구 1억4000만명의 거대 내수시장, 풍부한 천연자원, 젊고 생산성 높은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어 미래 성장 잠재력도 높다는 평가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10일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의 핵심거점인 블라디보스톡에 국내은행 최초로 사무소를 열었다.

블라디보스톡은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극동지역 개발 프로젝트의 중심지다. 최근 러시아 극동개발부 차관은 극동지역에 경제특구를 지정해 해외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우리은행 측은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08년 1월 러시아현지법인 설립 이후 2011년 8월 상뜨-페테르부르크 지점을 개설했으며, 이번 블라디보스톡 진출로 모스크바에서 극동지방에 이르는 현지영업망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순우 은행장은 개소식에서 "한국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블라디보스톡 진출을 통해 극동지역 개발에 참여해 현지기업에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환은행도 러시아 진출에 적극적이다.

외환은행은 지난 9월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현지법인(법인명 러시아한국외환은행)을 오픈했다. 러시아현지법인은 지난 2008년 처음 사무소 형태로 진출한 후 올해 7월 러시아 감독당국으로부터 법인영업 인가를 받아 자본금 3000만 달러, 총 직원 19명(본국 직원 3명)의 현지법인으로 전환했다. 이번 러시아현지법인 개점으로 외환은행은 23개국에 걸쳐 총 90개의 해외 영업망을 구축하게 됐다.

김한조 외환은행장은 "러시아에 진출한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현지 협력업체 거래유치 등으로 모스크바 현지 기업들과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하나금융지주는 러시아에서 현지 은행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금융은 앞으로도 해외 금융기관과 합작 또는 인수·합병(M&A)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지기자

증권사 3분기 순이익 전년비 3배

채권 매매익 증가 영향… 46곳 흑자 적자는 13개사 그쳐

증권사들의 3분기 순이익이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 관련 자기매매 이익 증가에 힘입어 3배 가까이 늘어났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9개 증권사의 3분기 당기순이익(잠정)은 8145억원으로 전분기(2763억원)보다 194.8%(5382억원) 증가했다.

항목별로 보면 증권사들의 채권 관련 자기 매매이익이 1조9360억원으로 2분기보다 4313억원 늘었다.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금리가 하락한 데 기인했다.

인원과 지점 감축 등 증권사의 비용절감 노력이 이어지면서 판매관리비는 1조7774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837억원 줄었다.

수탁수수료 수익(9015억원)은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기대감으로 주식거래대금이 지난해 2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영향으로 1212억원 늘었다.

삼성증권의 삼성자산운용 지분 매각이익 등으로 영업외이익은 전분기보다 1916억원 증가한 1784억원을 기록했다.

증권사 59곳 가운데 46곳이 흑자를 냈고 13곳은 적자를 나타냈다.

순이익 1~5위는 삼성증권, KDB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순이었다.

3분기 자기자본이익률(ROE)의 경우 국내 증권사는 2.0%, 외국계 증권사와 외국계 지점은 각각 0.3%, 3.5%로 집계됐다.

증권사들의 재무 건전성은 악화됐다.

전체 증권사의 평균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지난 9월 말 현재 445.7%로 6월 말(451.8%)보다 6.1%포인트 줄었다.

채권보유 규모 확대에 따른 금리 관련 위험액 증가 등으로 총위험액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하이투자, 최대 연 7% 지수형 ELS 2종 공모 하이투자증권은 12일부터 14일 오후 1시까지 ELS 2종을 총 20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에서 'HI ELS 664호'는 KOSPI200 지수, HSCEI 지수, S&P5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자동조기상환형 ELS다. /하이투자증권 제공

한중 FTA 금융상품 봇물

3%대 위안화 예금·대출상품도 출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전격 타결됨에 따라 위안화 관련 금융 상품도 눈길을 끌고 있다.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시중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2%대로 내려간 가운데 연3%대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위안화 예금과 대출, 파생상품등이 잇따라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역외 위안화(CNH)를 기준금리로 삼은 '글로벌 위안화 예금 패키지'를 내놨다.

입출식 통장과 자유적립식, 회전식 정기예금으로 구성된 이 상품은 우대금리 포함시 연 3.07%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도 이달 안에 외환은행과 손잡고 4억 위안 한도의 정기예금을 6개월과 1년 만기로 특별 판매할 계획이다. 이 상품에 6개월과 1년을 맡길 경우 각각 연 3%, 3.1% 금리가 적용된다.

일반 시중은행에서 6개월짜리 원화 정기예금에 최저 1% 중후반대의 금리를 준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는 2배 가까운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신한은행은 올해 안에 위안화 예금과 위안화 외화 대출을 도입할 계획이다.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역시 위안화 정기예금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도 있다.

지난 9월 해외플랜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6000만 위안 규모의 위안화 대출한도를 제공한 외환은행은 최근 위안화 전용 대출상품인 '글로벌(Global)위안화대출'을 출시했다.

위안화 무역결제와 대중국 직접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나온 이 상품은 '수입결제자금대출'과 중국지역 직접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에 장기대출을 지원하는 '해외투자자금대출'로 구성돼 있다.

이를 통해 외환은행은 중국으로부터 플랜트장비 등을 수입할 때 필요한 위안화 수입L/C 개설한도와 함께 수입대금 결제 지원을 위한 위안화 대출을 제공하게 된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후강통 시행… 중국 증시 빗장 '활짝'

중국 상하이증시와 홍콩증시 간 주식 교차거래를 허용하는 후강퉁 제도가 오는 17일 전격 시행을 예고하면서 중국 본토투자를 노리는 글로벌 자금도 요동칠 전망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국 본토증시는 기존 4조2000억 달러(약 4000억원) 규모에 더해 하루 130억 위안(약 2조3000억원)의 거래자금이 유입되면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주식시장으로 부상하게 된다.

후강퉁 기대감에 중국 증시와 위안화 환율은 들썩였다. 제도 시행 소식이 전해진 지난 10일 상하이종합지수는 2.3% 급등하며 최근 3년래 최고치를 찍었고 홍콩 외환시장에서 장중 역외 위안화 환율도 0.18% 하락(위안화 가치 상승)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렁춘잉 홍콩 행정장관이 시진핑 주석과 만난 뒤 후강퉁 시행을 공식 발표했다.

국내 증시 전문가들도 향후 중국 증시 전망을 긍정적으로 점쳤다.

최설화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강세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거 국내 자본시장 개방 사례 등을 고려했을 때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 연구원은 "시행일자로부터 한 두달 정도 차익매물 실현이 나올 수 있다"며 "중국도 한국도 전반적인 경기부진이 우려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후강퉁을 통해 중국 본토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은 종목 중심의 접근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기자

홈쇼핑 보험 판매 계속 허용… 업계 '안도'

높은 불완전판매율 등 부작용 개선 목소리

금융당국이 홈쇼핑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를 계속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업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하지만 높은 불완전판매율 등은 개선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3일부터 실시한 GS·롯데·현대·CJO·NS 등 5개 홈쇼핑사와 생명·손해보험협회를 대상으로 홈쇼핑 보험판매 기획·기동검사를 지난 6일 마쳤다.

검사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홈쇼핑사의 보험상품 판매 행위 전반에 특별한 위법행위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보험사들이 홈쇼핑 채널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최수현 금감원장이 "홈쇼핑의 보험 판매를 허용할지에 대해 다시 검토하겠다"며 홈쇼핑에서 보험상품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 상황에서 보험업계에서는 일단 홈쇼핑 채널을 유지할 수 있는데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저금리 기조 유지로 어려움에 처한 보험업계에 홈쇼핑 채널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도 이번 조사결과를 반기는 이유 중 하나다.

지난 2003년 처음으로 TV홈쇼핑을 통한 보험 판매가 도입된 이후, 홈쇼핑 채널은 거래비용 절감, 거래 편리성 및 소비자의 채널 선택권 확대 등의 요인으로 급성장했다.

특히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홈쇼핑을 통해 대면 판매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홈쇼핑 채널을 활용한 보험사는삼성·현대·동부·LIG·메리츠·롯데·흥국·AIG·ACE 등 손보사와 교보·동양·신한·AIA·라이나·BNP파리바카디프·KB·KDB생명 등이다.

반면 불완전 판매율이 타 채널보다 높고 사후 서비스가 미흡하다는 점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불완전판매율은 0.91%로 개인대리점(0.64%), 설계사(0.46%) 보다 높았다. 손해보험도0.33%로 설계사(0.18%), 개인대리점(0.15%)보다 많았다.

불완전 판매율이란 품질보증해지와 민원해지, 무효건수를 신계약건수로 나눈 비율로 이 비율이 높을 수록 그만큼 부실판매가 많다는 것을 의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김형석기자 khs84041@



유진투자, 태국 아이라증권과 MOU 유진투자증권은 태국증권거래소에서 태국 아이라증권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포괄적업무제휴(MOU) 체결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제휴를 통해 유진투자증권은 일본과 인도네시아 등 각국 금융시장의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태국과도 금융상품 공동개발에 나선다. /유진투자증권 제공

닛산, 첫 디젤 SUV로 티구안 잡는다

도심형 SUV '캐시카이'… 동급 최고의 가격 경쟁력



11일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공개된 닛산 캐시카이.

한국닛산이 11일 자사의 첫 디젤 SUV 캐시카이(Qashqai)를 선보이며 동급 베스트셀러인 폭스바겐 티구안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캐시카이는 2007년 첫 출시돼 현재까지 누적 판매 200만대를 넘은 닛산의 글로벌 베스트셀링 모델이다. 한국에 출시되는 캐시카이는 올해 초 유럽에서 새롭게 선보인 2세대 모델로서 2014년 상반기 유럽 시장 SUV 판매 1위를 달성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부산모터쇼를 통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한국에 소개됐다.

캐시카이는 디자인, 첨단 안전기술, 퍼포먼스에 있어 혁신적인 진화를 이룬 '궁극의 도심형 SUV' 모델이다. 출시 직후 영국 왓카(What Car?) 선정 '올해의 차(Car Of The Year)' 수상, 유로 엔캡(Euro NCAP) 테스트 최고 등급인 별 5개 획득 등 상품성과 안전성을 검증 받았다.

캐시카이는 최고출력 131마력, 최대토크 32.6kg·m의 1.6ℓ 디젤 엔진과 7단 매뉴얼 모드를 지원하는 엑스트로닉 CVT(Xtronic CVT) 무단 변속기를 탑재했다. 이를 통해 세련되고 매끄러운 주행성능과 공인연비 15.3km/ℓ(도심 14.4km/ℓ, 고속도로 16.6km/ℓ)의 효율성까지 확보했다. 특히 낮은 rpm 영역에서부터 최대토크를 발휘해 중·저속 구간이 많은 한국의 도심 환경에 최적화됐다는 평가다.

닛산 디자인 유럽(Nissan Design Europe)에서 완성한 캐시카이의 디자인은 SUV 특유의 넓은 시야와 넉넉한 실내 공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패밀리카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동급 최고 수준인 2645mm의 휠베이스와 함께 성인 5명이 타기에 충분한 헤드룸과 레그룸을 확보했으며, 트렁크는 총 16가지 다양한 구성이 가능한 혁신적인 듀얼 플로어 시스템으로 실용성을 높였다. V모션 그릴과 부메랑 형태의 LED 리어 램프 같은 닛산의 차세대 패밀리룩을 적용, 다이내믹함을 더했다.

도심형 SUV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다이내믹한 성능을 극대화하는 3가지 첨단 기술이 조합된 '섀시 컨트롤(Chassis Control)' 시스템도 탑재됐다. 닛산 모델 최초로 적용된 '액티브 트레이스 컨트롤(Active Trace Control)'은 코너 주행 때 각 휠에 실리는 브레이크 압력을 조절해 안전성을 높인다. '액티브 엔진 브레이크(Active Engine Brake)'는 섬세하게 엔진 브레이크를 가함으로써 코너링을 더욱 수월하게 해 주는 기술이다. '액티브 라이드 컨트롤(Active Ride Control)'은 굴곡이 심한 노면에서 가벼운 제동을 가해 차체 흔들림을 억제함으로써 안락한 주행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캐시카이에는 닛산의 안전 철학인 '세이프티 실드(Safety Shield)'가 적용됐다. 전방 비상 브레이크, 차선 이탈 경고, 사각 지대 경고 시스템, 운전자 주의 경보 등 탑승자의 안전을 돕는 기술과 함께 어라운드 뷰 모니터, 인텔리전트 파크 어시스트 등 손쉬운 주차를 돕는 기술도 적용했다.

닛산은 캐시카이를 첨단 안전 기술, 휠 사이즈 등에 따라 총 3가지 사양(S/SL/Platinum)으로 출시,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국내 출시 가격은 S 모델 3050만원, SL 모델 3390만원, 플래티넘 모델 3790만원으로 동급 최고의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

한국닛산 타케히코 키쿠치 대표는 "올해 들어 닛산은 40% 가까이 성장하며 새로운 전성기를 맞고 있다. 최근 디젤 SUV에 대한 한국 고객들의 뜨거운 관심에 부응해 닛산의 글로벌 베스트셀러 캐시카이를 매력적인 가격대에 출시했다. 향후 캐시카이는 알티마와 함께 닛산 브랜드의 성장을 이끌 핵심 주력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의택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차별화' 택한 태블릿PC 봇물

콘텐츠에 최적화된 기능 내세워 공략

스마트폰의 성장에 밀려 다소 주춤했던 태블릿 PC가 '차별화' 전략을 택하며 다시 한 번 시장 확대에 나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달리 태블릿 PC는 동영상,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기능과 문서 작업 등 업무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이같은 용도로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근 제조사들이 남다른 기능을 앞세운 태블릿 PC를 출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존하는 이동통신 중 가장 빠른 광대역 LTE-A를 지원하는 '갤럭시 탭S 광대역 LTE-A' 10.5형을 이달 초 출시했다. 광대역 LTE-A는 이론적으로 최대 225Mbps의 속도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가 콘텐츠를 더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또 20여 종의 매거진을 즐길 수 있는 '페이퍼가든', 영화와 VOD 서비스를 감상하는 '삼성 비디오' 등 다양한 무료 콘텐츠를 '갤럭시 기프트'를 통해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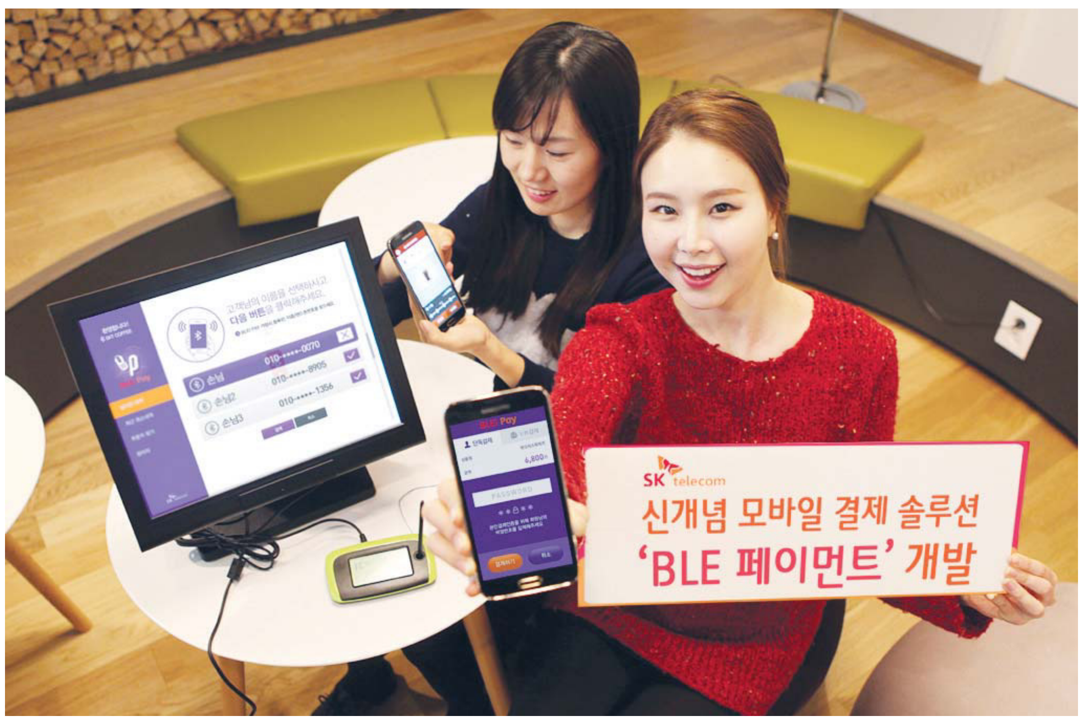


레노버는 업계 최초로 피코 프로젝터를 내장한 '요가 태블릿 2 프로'를 국내에 출시했다. 제품에 내장된 피코 프로젝터는 어두운 환경에 최적화돼 있으며 거리 2m, 50인치 이내 화면에서 가장 선명하게 콘텐츠를 영사한다. 두 개의 1.5W 전면 스피커와 함께 태블릿 최초로 5W 서브 우퍼를 사용한 고출력 JBL 스피커를 탑재해 생동감 있는 사운드도 감상할 수 있다.

소니의 엑스페리아 Z3 태블릿 컴팩트는 세계 최초로 플레이스테이션4(PS4)와 연동 가능한 PS4 리모트 플레이를 탑재해 눈길을 끈다. 듀얼쇼크4 무선 게임 컨트롤러 마운트 GCM10, 와이파이를 이용해 집안 내 어디서나 PS4와 연동해 게임을 즐길 수 있다. 8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6.4mm, 270g의 얇고 가벼운 디자인을 갖춰 PS4 리모트 플레이를 장착하고 게임을 즐기기에 무겁지 않다.

12월 초 출시 예정인 엔비디아의 '쉴드 태블릿'은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특화된 제품이다. 192개의 GPU 코어를 내장한 모바일 프로세서인 엔비디아 '테그라 K1'을 탑재해 고성능 PC 게임을 태블릿에서도 동일하게 즐길 수 있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블루투스로 모바일 결제 OK SK텔레콤은 더 쉽고 안전한 '블루투스 저전력'(Bluetooth Low Energy·BLE) 기술 기반의 모바일 결제 솔루션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SK텔레콤이 개발한 모바일 결제 솔루션은 결제 기기에 비밀번호만 입력해도 결제가 이뤄지는 'BLE 페이먼트'와 여러 장의 플라스틱 카드를 한 장의 전자카드에 넣어 관리하는 'BLE 전자카드' 등 2종이다. /SKT 제공

삼성 커브드 TV 국내 누적판매 5만대 돌파

55인치 보급형 모델 인기

삼성전자 커브드(곡면) TV(사진)의 국내 누적 판매량이 5만대를 넘어섰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커브드 UHD TV를 세계 최초로 국내 시장에 내놓은 이후 5개월여 만인 7월에 누적 판매 1만대를 넘었고, 8~10월에는 한 달에 1만대 이상 팔려 누적 판매량 5만대를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커브드 TV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은 55인치 보급형 UHD TV(모델명 UN55HU7200F)로 월 판매량 3000대를 넘었다.

삼성전자는 커브드 TV 출시 초기에는 고가의 프리미엄 모델로 한정해 시장에 내놓았으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7월 보급형 커브드 UHD 모델까지 라인업을 확대했고 풀HD급 커브드 TV도 연달아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현재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커브드 TV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커브드 TV 출시 이후 5개월 걸리던 1만대 판매가 최근에는 한 달 만에 넘어선다는 점에 비춰 커브드 TV가 차세대 TV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기자 ysw@

대기업 中 매출 2년새 35%↑

삼성전자 40조… 현대차·LGD·LG화학도 '10조 클럽'

대기업의 중국 매출이 최근 2년 사이 35%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액 기준 200대 기업 중 중국 실적을 공시한 38개 회사의 지난해 중국 매출은 145조원으로 2011년보다 37조원(35%)이 늘었다. 중국 매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6%에서 17.5%로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1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돼 국내 대기업의 중국 매출은 더욱 가파른 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다.

11일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매출액(연결기준) 상위 200대 기업(금융·공기업 제외)의 해외 실적을 조사한 결과 중국 매출을 공시한 회사는 38곳이었다. 이들의 중국 매출은 145조15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의 중국 매출은 2011년 108조원에서 2012년 130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145조원으로 증가했다. 2년만에 34.6%(37조2800억원) 급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이들 대기업의 전체 매출 증가율 19.9%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특히 중국 매출을 제외하면 이들 대기업의 최근 2년간 매출 증가율은 17.1%로 떨어진다.

2013년 기준 중국 매출액이 가장 많은 곳은 삼성전자다. 228조7000억원 매출 중 40조1500억원(비중 17.6%)을 중국에서 벌어들였다. 2년전인 2011년과 비교하면 23조원에서 무려 74%나 폭증한 금액이다. 중국 매출 비중도 14%에서 3.6%포인트 높아졌다.

2위는 현대자동차. 중국법인을 통해 19조4000억원(18.2%)의 매출을 올렸다. 이어 LG디스플레이(15조2300억원·56.3%), LG화학(10조2000억원·44%)이 '중국 매출 10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현대모비스(9조1200억원·26.7%), 삼성디스플레이(8조6200억원·29.2%), 포스코(6조5000억원·10.5%), LG전자(3조9700억원·6.8%), 에쓰-오일(3조9000억원·12.5%), 삼성SDI(3조3600억원·67%)가 '톱10'을 형성했다.

중국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삼성SDI다. 지난해 매출 5조200억원 중 67%인 3조3600억원을 중국에서 벌어들였다. 삼성SDI는 태블릿PC·스마트폰 부품과 소형전지 사업 등으로 중국에 진출했다.

LG디스플레이도 56.3%로 매출의 절반 이상을 중국에서 올렸다. '초코파이'를 필두로 한 오리온도 2조4900억원 매출 중 44.8%에 달하는 1조1100억원을 중국에서 벌었다. 이어 LG화학(44%), 성우하이텍(41.4%), 삼성전기(31.2%), 한일이화(30.3%) 등도 중국 비중이 30%를 넘었다.

/김태균기자 ksgit@metroseoul.co.kr



약정·위약금 없는 '올레 순액 요금제' KT는 요금 약정 없이 기본요금을 할인해주는 '올레 순액 요금제'를 애초 계획보다 앞당겨 오는 12일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KT는 '완전 무한', '모두다올레' 등 주요 상품 외에 청소년, 장애인, 시니어 요금제를 포함해 현재 가입 고객 중 90%를 차지하는 LTE, 3G 요금 상품도 순액 요금제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KT 제공

엡손 PC·스마트폰 연동 라벨 프린터 출시

프린터 전문기업 엡손이 스마트폰과 PC에서 사용 가능한 2015년형 사무용 라벨 프린터 2종을 출시한다.

이번에 선보일 제품은 기존의 라벨프린터에는 없었던 블루투스 기능과 와이파이 기능 및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LAN 기능이 가능하다.

신제품 중 모델 OK600P(**왼쪽 사진**)는 휴대 및 PC 유 무선 연결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모델 OK1000P(**오른쪽**)는 OK600P 기능 외에도 LAN 기능이 추가되어 사무실 등에서 여러 PC에서 공유해 작업 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 시킨 것이 장점이다.



엡손 라벨프린터를 판매하고 있는 새빛맥스에서는 "11월 신제품 출시 이벤트로 모델 OK600P 구매자에게 3만원원 상당의 카트리지를 추가로 주는 이벤트를 실시한다"며 "세계적인 프린터 전문회사인 엡손의 기술이 다시 한번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며 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소비자 가격은 OK600P는 25만원, OK1000P는 45만원이다.

/양성운기자 ysw@



GS건설 '한강센트럴자이' 모델하우스를 찾은 고객들이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미분양 줄고, 땅 팔리고

김포 부동산 '희색'

분양하는 단지마다 실패해 건설사들의 무덤으로 불리던 경기도 김포지역에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다. 수천가구에 이르던 미분양 아파트가 빠른 속도로 소진되는가 하면, 한강신도시 내 택지도 속속 주인을 찾는 모습이다.

11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김포시 미분양 물량은 총 1697가구다. 지난해 9월 3973가구와 비교해 57.3% 줄어든 것으로, 도 내 시·군 지역 중 1년 사이 감소폭이 가장 컸다. 같은 기간 경기도 미분양은 2만5500가구에서 1만3505가구로 47.0% 줄었다.

1년 가까이 또는 1년이 넘도록 미분양에 시달리다 올 들어 완판된 단지도 잇달아 등장했다. 2012년 분양을 시작한 '래미안 한강신도시 2차'가 지난 3월 100% 계약됐고, 지난해 11월부터 계약에 들어간 LH공공분양아파트(Ab-06블록)도 10월 판매가 완료됐다.

신규분양을 꺼리던 건설사들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물론이다. 상반기 GS건설 '한강센트럴자이'와 대우건설 '한강신도시2차 푸르지오'가 5, 6월 연달아 공급된 데 이어 이달에도 대우건설 '한강신도시3차 푸르지오'와 대림산업 'e편한세상 캐널시티'가 대기 중이다.

특히 '한강신도시2차 푸르지오'는 한강신도시에서 분양한 단지 중 가장 높은 2.1대 1로 순위 내 경쟁률을 기록한 뒤 3개월 만에 100% 계약되는 기염을 토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오랫동안 팔리지 않던 신도시 내 택지 계약도 속속 이뤄지고 있다. LH는 장기동·운양동의 아파트 외 수의계약 대상 상업용지는 판매가 종료되고, 업무용지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등도 거래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김포시의 이 같은 회복세의 원인을 거주여건 개선에서 찾고 있다. 신도시 시범단지가 속한 장기동만 해도 올해 5개의 초·중·고교가 문을 열고, 3개의 상가건물이 완공됐다. 운양동도 상가 분양이 한창이다.

무엇보다 2018년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가 착공에 들어간 영향이 컸다. 개통이 불확실했던 도시철도의 개발계획이 가시화된 덕분이다. 김포도시철도가 개통되면 한강신도시에서 김포공항역까지 2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박선옥기자 pso9820@

대우조선, 세계 첫 LPG 추진 운반선

DSEC 등 4개사 공동 개발

대우조선해양이 종합 엔지니어링 자회사인 디섹(DSEC), 벨기에 선주사 EXMAR 등 4개사와 공동으로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친환경·고효율 LPG 운반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3월부터 이들과 'LPG 추진 선박'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해 최근 노르웨이 선급 DNV-GL 사의 기본승인을 획득했다. 기본승인은 선박 기초설계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절차로, 확정 이후에만 해당 선종에 대한 수주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이번에 개발된 LPG 운반선은 길이 182m, 폭 29.6m 규모로, 3만9000CBM(입방미터)의 저장 탱크를 설치하고 있다. LPG를 주 추진연료로 하는 MAN D&T 사의 ME-LGI 엔진이 탑재된다. LPG 운반선의 주요 화물인 프로판과 부탄, 그 혼합물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고, 탱크에 저장된 연료를 고압 액체를 분사하는 방식으로 구동된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AIP 취득을 계기로 셰일가스 개발의 본격화로 급격히 증가 중인 LPG 물동량과 환경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고효율 LPG 운반선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이영만 DSEC 사장은 "모회사와 자회사가 공동으로 신선종 개발을 주도해 단기간에 뛰어난 성과를 거두는 데 성공했다"며 "양사는 앞으로도 협업을 지속해 시장의 변화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준기자 mj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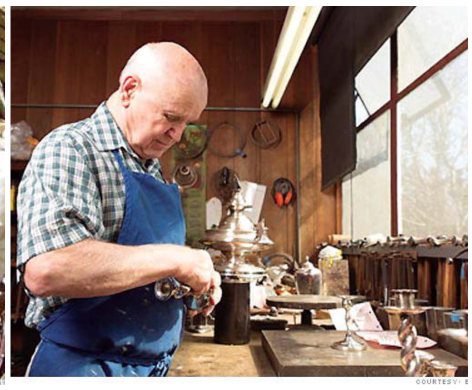
꽃무늬 실크 수의 보셨나요?



글로벌 이코노미

/조선미기자 seonmi@







과거·미래 공존하는 샌프란시스코 이색 제조업체 '눈길'

첨단 기술과 장인 정신이 공존하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최근 미 경제매체 CNN머니가 과거와 미래를 넘나드는 도시의 이색 제조업체를 소개했다.

◆ 꽃무늬 실크 수의

죽음과 사후 세계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본 수의 업체 '킨카라코'. 꽃무늬 실크 수의 등을 선보이며 장례 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소재로 만든 기본 수의의 가격은 300달러(약 32만원) 정도다. 스코틀랜드산 천연 양모에 화사한 꽃 장식이 돼 있는 고급 수의는 1500달러다.

킨카라코의 에스메랄다 켄트 대표는 젊은 시절 영화 업계에서 의상 디자이너로 일한 경력을 살려 수의 업체를 차렸다. 켄트 대표는 "지난 10년간 미국 전역에서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 어둡고 무거운 장례식보다 밝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특히 샌프란시스코는 개성만점 발명품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후한 점수를 주는 멋진 도시"라고 말했다.

◆ 반짝반짝 은접시

'비로·선즈'는 1945년 은제품 세공을 시작했다. 가업을 아들, 손자까지 대대손손 이어오고 있다. 비로·선즈는 마을에 수백 년간 이어져온 세공 기술로 다양한 은 제품에 생명을 불어 넣는다. 고객 대부분은 은촛대와 은접시 등 집안 대대로 물려 받은 가보를 최상의 상태로 보관하고 싶어하는 50대 이상 장년층과 노년층이다.

은 제품을 손쉽게 세공할 수 있는 기계도 시중에 나와 있지만 비로·선즈는 관심이 없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릇에 윤을 내고 그 안에 장인 정신을 심겠다는 고집이 있어서다. 비로·선즈는 그릇이 만들어진 시대의 숨결을 고스란히 되살려 내는 복원 작업에 현대적인 기계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 전기 오토바이

오토바이 제조사인 '미션 모터스'의 마크 시거 대표. 그는 몇 년 전 마음에 드는 오토바이가 없어 직접 만들기로 결심했다. 시거 대표는 "사람들에게 자랑할만한 멋진 오토바이를 구하다가 결국 회사까지 차렸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미션 모터스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엔진 오토바이 대신 전기 오토바이를 만들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친환경 전기, 하이브리드 엔진은 미래형 오토바이 시대를 열며 미국 안팎에서 좋은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현재 미션 모터스는 오토바이를 제조하는 것은 물론 스포츠카와 호화 보트 업체에 각종 부품과 엔진도 공급하고 있다.

스마트폰 '6초 부팅' 대만서 신기술 개발

6초 만에 스마트폰을 부팅할 수 있는 신기술이 대만에서 개발됐다. 기존 40초 가량 걸리던 것에 비하면 7배 가량 빨라진 셈이다.

대만 중앙통신사(CNA) 등 외신은 뤄시우 중정대학교 컴퓨터전자공학과 교수가 스마트폰의 부팅시간을 대폭 줄이고 절전기능까지 향상시킨 기술을 개발했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초고속 부팅기술'로 이름 붙여진 이 기술은 현재 평균 40초인 스마트폰 부팅시간을 6초로 줄여준다. 스마트폰을 끄는 시간도 10초면 충분하다.

특히 정보통신 주변기기와 차량 탑재용 스마트 기기에도 스마트폰 초고속 부팅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뤄시우 교수는 "전기 신호로 데이터를 기록하고 삭제할 수 있는 비휘발성 컴퓨터 기억장치인 플래시 메모리가 지난 비순차적 정보 접근(랜덤 액세스) 특성을 응용했다"며 "스마트폰 관련 제품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통신사는 뤄 교수가 개발한 '스마트폰 6초 부팅기술'이 대만 국내는 물론 한국에서도 특허인증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국명기자 kmlee@



/자유시보 제공



中 '독신자의 날' 온라인 매출 38분 만에 1조8000억원 '독신자의 날'을 맞은 11일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가 저장성 항저우시의 본사에서 첫날 매출액 결과를 전광판에 공개했다. 이날 할인 행사가 시작되자 2분 만에 매출이 10억 위안(약 1800억원)을 돌파했다. 이어 38분 만에 100억 위안(약 1조8000억 원)을 넘어 지난해 같은 시간에 올린 50억 위안의 2배를 기록했다. 중국 전역에서 대대적인 할인 행사가 펼쳐지는 독신자의 날은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불린다. /신화 연합뉴스

내년 세계 경제 침체 가능성 65%

대공황 맞춘 '족집게' 기관이 예측해 화제

미국의 대공황을 정확히 예측했던 제롬 레비 경제예측센터가 비관적인 세계경제 전망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세계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란 월가의 낙관론과는 달리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무려 65%에 달한다고 경고했다.

11일 AP·AFP 등 외신에 따르면 제롬 레비 경제예측센터의 데이비드 레비 소장은 최근 월간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레비 소장은 "최근의 세계 경제 추세는 내년의 하강 국면을 예고하는 쪽으로 분명히 가고 있다"며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의 유동성이 여전히 방대해 또 다른 금융 위기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진국들의 통화 정책 구사 여력이 충분치 못해 저인플레가 디플레로 악화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게 레비 소장의 지적이다. 미국은 국내총생산(GDP)의 13%에 달할 정도로 무역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도 위기 가능성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제롬 레비 센터의 이런 비관론은 미국 경제 호조 여지가 많다는 모건스탠리, 골드만 삭스의 분석과는 대조적이다. 하지만 제롬 레비 경제예측센터가 2007년 2월 주택 거품 붕괴를 예측했고 이보다 앞서 1929년 미국 증시 대폭락을 점쳤던 곳이기 때문에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이국명기자


www.newsis.com
NEWS IS
(NEWSis)
국내 최대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는
300여명의 국내 기자와 AP · 로이터 · 신화통신 등과 함께
지구촌 구석구석 소식을 전합니다
뉴시스의
10년, 100년을 위한
독자와의 약속
늘 소통하고 공감하는 참 언론
더 빠르고 더 정확한 민완 언론
약자의 편에 서는 따듯한 언론
비리에 눈감지 않는 강한 언론
지구촌을 선도하는 글로벌 언론
공감언론 뉴 시 스 NEWSis( )

새로 나온 책

당신은 고민하며 사는가?
진현종/청아출판사



'고려 팔만대장경'에서 뽑은 후회하는 삶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지혜가 담긴 이야기들을 수록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잘못된 의견이나 집착으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담은 이야기들을 골라 모았다.

세계를 읽다 호주
일사 샤프/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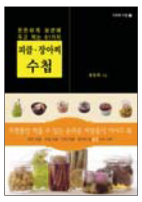
'이민자의 땅' '모든 것이 반대인 남반구 나라' 호주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팁을 정리했다. 느긋하고 여유 넘치는 호주인의 겉모습뿐 아니라 그들이 세계인에 대해 갖고 있는 다양한 편견과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까지 속속들이 들여다볼 기회를 제공한다. 다른 영어권과는 다른 호주식 영어의 억양과 표현법, 호주인과 소통하는 방법도 자세히 소개했다.

마음요가
아키바 리에/청림라이프



'미수다'의 일본 여신 아키바 리에가 그동안 꾸준히 요가를 해오면서 느꼈던 모든 감정을 담았다. 한국에 오게 된 계기, 발리로 떠났을 때의 마음, 방송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좌절이나 성취감 등도 리에만의 문체로 진솔하게 풀어내고 있다. 요가 동작마다 효과나 주의사항,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팁도 세심하게 정리했다. 유명 포토그래퍼 이영주 작가의 사진이 책을 더 풍성하게 만든다.

피클·장아찌수첩
용동희/우듬지



피클과 장아찌, 박이는 재료의 신선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을 제거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동서양의 대표적인 저장음식이다. 책은 제철 재료를 착한 가격에 구입해서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61가지 맑은 피클·오일 피클·간장 피클·장아찌를 소개한다.

거품과 냄비 한국 패션의 문화정치학
김종법/학민사



패션이라는 요소를 통해 한국사회를 바라보고 한국의 정체성, 나아가 그것이 오늘날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한류나 한국문화와 어떤 상관성을 갖는지 쉽게 재구성했다. 패션을 통해 우리 사회에 내재돼 있거나 표출되는 여러 현상들을 시기·주제·세대별로 어떤 양상과 모습들이 나타났는가를 되돌아본다.

습관 교육
이마무라 사토루/좋은날들



평소의 태도와 목표관리, 공부 마음가짐을 바로잡아주는 습관교육을 통해 아이의 성취의욕과 잠재력을 이끌어 내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저자는 아이를 성장시키는 부모의 습관과 아이를 망치는 부모의 습관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아이의 성취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7가지 조건, 기본기가 튼튼해지는 과목별 공부법 등을 알려준다.

/박지원기자 pjw@

현실감 넘치는 미래로 초대

거대한 스케일과 묵직한 메시지 SF 동화

장편동화 '바닷속 태양'은 영화 설국열차의 매력을 떠올리게 하는 설정과 주제 의식이 돋보이는 본격 SF 동화다.

오랜 전쟁과 환경오염으로 모든 인류가 육지를 떠나 해저 도시를 건설해 살아가게 된 가까운 미래. 센트럴 돔의 박태평 총리와 오션제약의 한만세 회장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서로 검은 손을 잡는다. 한편 육지 환경을 연구하던 환희의 아빠가 누명을 쓰고 경찰에 체포되고 환희는 아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육지가 깨끗하다는 증거를 수집하러 모험을 떠난다.

작품에서 센트럴 돔은 인근 해역이 오염되면서 더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가게 된다. 이때 폐 기능이 약한 사람들의 건강 문제가 대두되면서 기업가와 정치가의 탐욕이 맞물려 이야기의 큰 축을 이룬다. 과학적 배경과 줄거리가 절묘하게 엮이면서 독자들을 현실감 넘치는 미래 세계로 초대하는 것이다.



바닷속 태양 문미영/푸른책들

사회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음모에 대항하는 센트럴 돔 시민들에게서 인류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데 이는 작가의 거시적인 안목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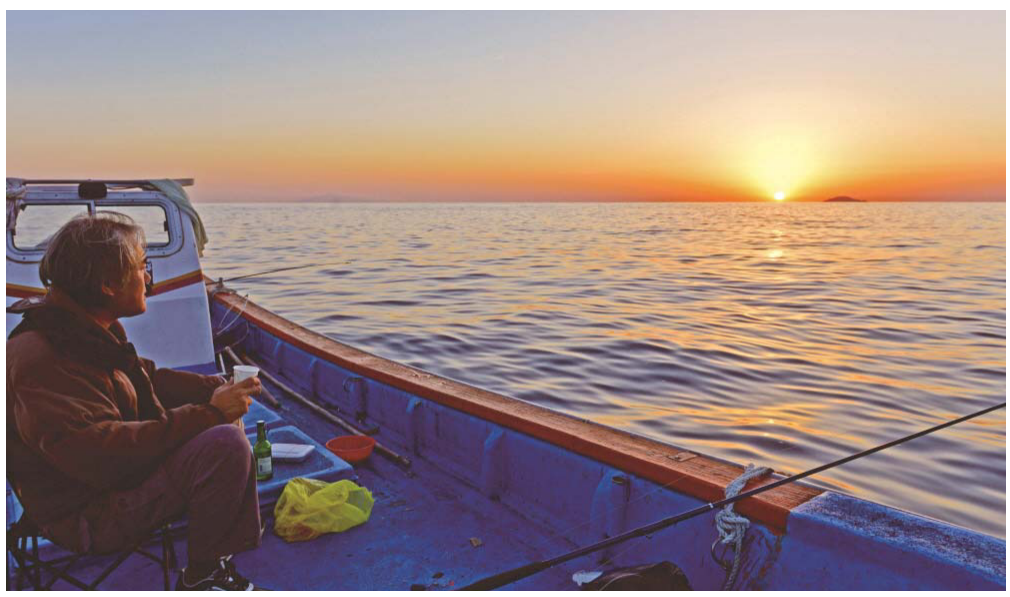
이 책은 블록버스터 영화 같은 거대한 스케일과 오염된 육지에 쫓겨나다시피 한 인류의 '디스토피아' 적 세계관이 독자들의 흥미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단순히 재미에 그치지 않고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 추악한 진실에 눈 돌리지 않는 센트럴 돔 시민들의 용기, 서로 믿고 의지하는 환희와 친구들의 성장기 등을 통해 묵직한 메시지를 전한다.

문미영 작가는 제21회 어린이동산 중편 동화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뛰어난 문학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 스포츠 신문 기자로 활동 중이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책 속 한 컷 — 타인의 체온이 그립다



두 마음이 부딪힌다. 한 잔 더 마신다.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지 나는 알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그냥 있는 것이다. 집이 나를 반기듯 나는 타인의 체온이 그립다. 그 포근하고 짜릿한 안온함. 사나운 겨울 북서풍의 반대말은 보일러도 아니고 전기장판도 아니다. 타인의 체온이다. -'내 술상 위의 자산어보'(한창훈/문학동네) 중-

/황재용기자 hsoul38@

'도서정가제' 개정안 21일부터 시행

할인 상한선 15%로 축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개정 도서정가제(출판법 개정안)' 시행령이 11일 열린 제49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도서정가제가 다소 높은 할인율(19%)을 허용하고 여러 개의 적용 예외 항목을 둬 책값에 과다한 할인과 그에 따른 책값 거품 형성, 지역 서점과 중소 출판사의 도태 등의 문제점이 노출돼 왔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개정 도서정가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개정 도서정가제는 2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책값 자체가 인상되는 것은 아니지만 할인 폭 상한선이 19%에서 15%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정 도서정가제 안에 발행 18개월이 경과한 도서의 경우 출판사가 정가를 변경해(재정가) 실제 판매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김종덕 장관은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지역 서점·소비자 등 출판시장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헤르만 헤세를 만나다!

국내 미발표작 포함 놓칠 수 없는 단편 11편

화제의 책

청춘은 아름다워
헤르만 헤세/문학동네

어느 작품이든 그 작품을 쓴 작가와 그의 삶이 녹아 있겠지만 헤르만 헤세는 그야말로 자신의 삶에서 작품을 그려낸 작가다.

그만큼 그의 삶과 작품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여러 작품 곳곳에서 그의 자전적인 요소가 쉽게 눈에 띈다. 그리고 지금 이 책에서는 또 다른 그를 만날 수 있다. 책에는 저자의 초기부터 후기까지의 시기를 폭넓게 아우르는 대표작과 국내 미발표작을 포함한 총 11편의 단편이 담겨 있다.



인생에서 다시 없을 비범한 시기인 유년과 청춘 시절의 애틋함과 작가가 늘 그리워한 무상하고 덧없는 존재의 상징인 꽃과 나비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들어 있다. 여기에 문명과 기독교 정신의 모순에 대한 비판과 아버지와 아들의 권력과 갈등의 문제 등 그가 경험한 다양한 주제를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 특히 아직까지 국내에 소개된 바 없는 '꼬마 굴뚝 청소부'에서는 예술가라는 존재에 대한 압축적인 자기 성찰을 그리고 있다.

더욱이 수평선을 물들이는 색깔, 집안이나 숲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마저 놓치지 않고 포착해 풍요로운 묘사로 풀어내는 그의 마법과 같은 이야기와 잔잔한 울림으로 우리 앞에 아련한 풍경으로 펼쳐지는 그의 기억들을 감상할 수 있다.

물론 책의 제목이면서 세계에서 뜨거운 사랑을 받은 '청춘은 아름다워' 역시 새로운 감동으로 찾아온다. 이제 그의 인생 얘기를 들어보자.

/황재용기자

"영양 간식 챙겨주세요~"

수능 수험생, 바나나와 오렌지 주스·진저 티 등이 좋아



델몬트 바나나와 풀무원의 아임리얼 오렌지. /각 사 제공

이제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바로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년간 최선을 다한 성과를 기다릴 때다. 이때 수험생의 막판 컨디션 조절과 두뇌 활동에 도움이 되는 간편 영양 간식을 소개한다.

◆아침엔 '바나나'

우리의 두뇌는 기상 후 약 2시간 이후가 되어야 정상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알려져 있다. 아직 잠에서 덜 깨어난 두뇌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두뇌비타민인 B6가 풍부한 대표적인 브레인푸드인 바나나 1개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비타민 B6는 뇌의 활동에 관여하는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를 촉진한다. 또 멜라닌·세라토닌과 같은 뇌 신경세포들이 원활하도록 돕고 아침 대용식으로 좋다.

◆점심엔 생과일 오렌지 주스

점심시간 직후에는 식곤증과 함께 급격한 피로감이 몰려오기 십상이다. 이때에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대신 피로회복에 효과적으로 알려진 비타민C가 풍부한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다. 비타민 C는 체내 유해 활성산소의 생성을 억제하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피로 회복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녁엔 진저 티(Ginger Tea)

생강은 매운 맛을 내는 '진게론'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며 면역력을 길러주는 성분이 있어 겨울철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다.

올리타리아 드링크 비니거 진저와 따뜻한 물을 1대 3의 비율로 섞으면 간단하게 진저 티를 완성할 수 있다. 여기에 레몬을 더하면 '레몬 진저 티'를 만들 수 있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장기숙성 정통 독일식 몰트맥주 오비맥주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정통 독일식 몰트맥주 '더 프리미어 OB' 출시행사를 열었다. 오비맥주가 4년만에 선보인 이 맥주는 독일산 최고급 노블홉 100%와 1000년 역사의 독일 황실 양조장의 효모를 사용해 기존 자사의 OB골드라거에 비해 3배 더 긴 평균 24일의 '장기 숙성 공법'으로 제조했다. 제품은 알코올 도수 5.2도로 기존 'OB골든라거'보다 0.4도 높지만 출고가는 500㎖ 1병에 1082원으로 동일하다. /손진영기자 son@

"10인분 시키면 10인분 무료 포장"

강강술래, 알뜰외식 대축제 진행
와인·곰탕 1+1 기프트 증정행사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오는 14일까지 매장에서 인기 메뉴를 주문한 양만큼 무료로 포장해주는 '알뜰 외식 대축제'를 벌인다.

상계·홍대·시흥·늘봄농원점은 소고기 구이류를 주문하면 한우불고기를, 돼지고기 구이류를 주문하면 돼지양념구이 포장상품을 주문한 만큼 무료 증정한다. 신림점은 소고기 구이메뉴 주문 때 한우불고기를 준다.(해피아워·정식류 제외)

또 전 매장에서는 육류와 잘 어울리는 산타리타 히어로 카버네쇼비뇽 와인 1병을 주문하면 결제 때 산타리타 히어로 멜롯 와인 1병을 선물로 증정한다.



같은 기간 전 매장에서는 기력 보충과 면역력 증진에 좋은 한우사골곰탕 대용량선물세트(800㎖·5팩·15인분)를 30% 할인된 3만8800원에 판매한다. 구매 때 소용량선물세트(350㎖·5팩·10인분·2만2500원)를 덤으로 준다.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sullai.com) 이벤트에 신청글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도루코리빙의 탁월한 절곡날 기술을 적용한 7중날을 탑재한 '페이스 세븐(PACE 7)'을 증정한다.

가드바에는 41개의 벌집형 모양 홀(hole)이 있어 면도시 부드러움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세척도 용이하다. 윤활밴드에는 천연 아르간 오일과 금잔화 추출물이 함유돼 있어 촉촉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정영일기자

"어른부터 아이까지"… 공예 DIY 열풍

관련 강좌·제품 인기

DIY(Do It Yourself) 열풍이 패션과 완구까지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저렴한 비용으로 나만의 아이템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영실업이 출시한 '시크릿 아트'(사진) 공예 완구 라인이 인기몰이 중이다. 올해 8월 출시한 '시크릿 재봉틀 쏘잉 스쿨'은 실과 바늘을 직접 끼울 필요가 없는 신개념 재봉틀로 아이들이 원단을 직접 골라 원하는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이 외에도 비즈 스티커를 만들어 핸드폰이나 수첩·필통 등에 붙여 나만의 소품을 만들 수 있는 '블링 비즈 이니셜 메이커'와 천을 골라 자수 방식으로 쉽게 원하는 핸드백을 만들 수 있는 '쏙쏙이 스쿨 플라워 자수 핸드백'등도 인기다.



가죽 공예 강좌를 여는 제조 업체도 늘고 있다.

핸드백 제조 기업 시몬느에서 운영하는 '백스테이지'에서는 가죽 공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DIY 숍을 전개하고 있다. 생산하고 남은 가죽 조각을 공수해 수강생들은 가죽 시장에서 별도로 가죽을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

액세서리 업계에서도 팔찌 줄을 산 뒤 원하는 펜던트(참, charm)를 골라 넣을 수 있는 트롤비즈·판도라 등이 인기다. /김수정기자 ksj0215@

'고구마'에 빠진 식·음료업계

영양 많아 식재료로 각광

기온이 내려가면서 겨울철 대표 간식인 고구마가 생각날 때이다. 뜨끈한 군고구마가 대표적이지만 최근 식·음료업계가 고구마를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고구마는 식물성 섬유질은 물론 항산화 비타민까지 풍부해 체력이 약해지는 겨울에 섭취하기 가장 좋은 식품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줘 아침 식사 대용으로 제격이다.

먼저 할리스커피의 '고구마 라떼'는 100% 국내산 고구마를 활용해 만든 것으로 지난 2005년 국내 커피전문점에서는 최초로 고구마를 활용해 내놓은 음료이다.

국내산 고구마 페이스트에 우유를 믹서하고 아몬드 토핑을 얹어 고구마의 달콤함과 고소한 맛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파리바게뜨의 '자색고구마 찹쌀 도넛'은 겉과 속이 모두 실제 고구마를 연상시킬 정도로 고구마와 흡사한 모양을 띠고 있어 눈길을 사로잡는 제품이다.

국내산 찹쌀을 넣어 쫀득한 식감을 살렸으며, 도넛의 겉면은 자색고구마로 색을 내 특유의 보랏빛을 살렸다. 도넛 속은 샛노란 고구마 앙금을 듬뿍 넣어 달콤함을 더했다.

여기에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아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100% 하이올레익 해바라기유로 튀겨내 건강하고 깨끗한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한국식 수작 프리미엄 꼬치구이 전문점 꼬지마루는 인기 메뉴로 꼽히는 '고구마튀김'(사진 아래)은 꿀을 베이스로 해 고구마의 달콤한 맛을 더욱 강조했고 가격을 낮춰 고객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롯데푸드는 가을 겨울철에 잘 어울리는 군고구마 맛 아이스크림 '백제신라고구마'(위)를 지난달 선보였다. 고구마 모양의 과자 안에 고구마 시럽과 달콤한 아이스크림이 가득 들어있는 모나카형 아이스크림이다. 진짜 고구마 같은 모양에 군고구마의 그릴 향까지 은은하게 느껴진다. 무안 지역의 고구마로 만든 시럽이 25% 들어있어 실제 군고구마의 맛을 충실히 재현했다. /정영일기자







대세는 '바이커 부츠'

보온성·스타일 동시 만족… 다양한 멋 연출

올겨울 '바이커 부츠'가 잇 아이템으로 떠올랐다.

금강제화가 선보인 브루노 말리의 바이커 부츠는 하프·롱 등 다양한 기장에 맞춰 버클 스트랩·지퍼 장식을 더해 시즌 초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정통 바이커 부츠를 표현하는 넓은 굽을 기본으로 부츠 앞부분에는 플랫폼, 뒷 부분에는 8㎝ 이상의 블록 힐을 사용한 모델도 출시됐다. 소재 역시 통기성과 흡습성이 뛰어난 천연 소가죽을 사용해 장시간 신어도 쾌적한 것이 특징이다.

랜드로바의 바이커 부츠는 칙칙한 겨울 옷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화이트와 베이지 컬러다. 특히 루즈하게 흘러 내리는 가죽의 주름이 특유의 여성미를 돋보이게 해준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사선으로 들어간 더블 버클 벨트와 4~5㎝ 히든 웨지는 다리를 길고 가늘어 보이게 한다.

지난해보다 이른 추위로 스타일에 보온성을 더한 랜드로바의 '퍼(Fur) 바이커 부츠' 역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빈티지 트렌드가 느껴지는 몰드 디자인과 부츠 속의 천연 양털이 믹스돼 스타일과 방한이라는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킨다. 발목부분의 퍼를 펼치거나 접어 올려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금강제화 관계자는 "미니스커트나 슬림핏 니트에는 굽이 높은 바이커 부츠를, 슬림핏 데님과 패딩에는 낮은 굽을 매치하면 캐주얼한 윈터룩이 완성된다"고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수능 수험표는 '할인 티켓'

패션업계 '포스트 수능' 마케팅 가동



패션업계가 수험생을 겨냥한 다양한 할인 행사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이 시기 수험표는 곧 할인 티켓이다.

이랜드그룹은 자사의 8개 패션 브랜드가 14~28일 수험생 격려 이벤트를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SPA 브랜드 미쏘와 미쏘시크릿, 슈즈 편집숍 폴더는 전국 매장에서 수험표를 제시한 수험생에게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후아유와 로엠은 명동 매장에서만 수험생 대상 20%, 스파오(13~16일)와 스탭 역시 명동 매장에서 1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 밖에 뉴발란스는 서울 명동·강남·부산·대구·광주 매장에서 전 품목 구매 때 더블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

슈즈 멀티숍 레스모아는 16일까지 수능을 치른 고3 수험생에게 전 품목을 22% 할인 판매한다. 고3 임을 증명하는 학생증이나 2015년 수능 수험표를 지참해야 한다.

슈즈 멀티 스토어 슈마커는 이달 말까지 스니커즈·워커 등 신발 2켤레 이상을 구매하는 수험생들에게 20% 할인 혜택을 준다.

아웃도어 브랜드 엠리밋과 밀레는 23일까지 '수능생 응원 이벤트'를 실시한다.

엠리밋 매장과 밀레 매장에서 신상 다운재킷을 구매한 수험생 중 총 100명을 추첨해 1인당 장학금 100만원, 총 1억원을 지급한다. 또 이 기간 학생증 또는 수능 수험표를 지참한 수험생은 신상 다운재킷을 40%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SPA 패션 브랜드 탑텐은 13~23일까지 '수험표 이벤트'를 진행한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다운 재킷, 중성세제로 물세탁 해야"

노스페이스 다운 선택·관리팁 공개

노스페이스는 올겨울 한파에 맞서 다운 재킷을 구매하려는 고객들을 위해 제품 선택 노하우를 소개했다.

11일 노스페이스에 따르면 다운재킷은 한 번 구매하면 오랫동안 입는 경우가 많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관리 역시 중요하다.

우선 자신의 아웃도어 활동 스타일과 구매 목적 등을 고려한 후 다운 재킷의 길이, 겉감의 방수 기능, 발열 기술 적용 등 세부 사항 순으로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좋다. 평소 짧은 시간에 고강도 활동을 즐긴다면 어깨·등판 부분에 스트레치 소재가 쓰였는지 재킷 부위별 특성을 체크한다.



고가의 다운 재킷을 오랫동안 새옷처럼 입기 위해서는 관리와 보관에도 신경써야 한다.

입고 난 후에는 바로 옷걸이에 거는 것보다 먼지와 습기를 제거한 뒤 보관한다. 주머니에 넣어두거나 접어 보관하면 볼륨감이 줄고 습기로 품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문지 혹은 제습제를 함께 넣어둔다.

다운 재킷은 드라이클리닝보다는 물세탁을 하는 것이 좋다. 드라이클리닝은 솔벤트 성분이 깃털의 기름을 분해해 탄력과 복원력을 훼손시킨다.

또 자주 빨면 고유의 기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되도록 전체 세탁은 피하고 손목·목 부분 등 때가 자주 타는 곳만 부분 세탁을 해야 한다.

세탁은 제품 태그(Tag)에 나와 있는 방법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일반적으로는 중성세제나 다운전용 세제를 사용해 오염된 부위를 가볍게 주물러 빤 뒤 깨끗한 물에 충분히 헹군다. 가볍게 탈수한 뒤에는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서 오래 말리고 두드려 뭉친 털을 풀어준다. /박지원기자



크리스마스라서 더 행복해요~

르네상스 서울 호텔, 다양한 이벤트 선봬

르네상스 서울 호텔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인다.

먼저 크리스마스와 뉴이어 패키지로 보다 뜻 깊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할 수 있는 'Oh holy night 패키지'를 준비한다. 다음 달 19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이용 가능한 패키지는 디럭스 룸에서의 1박과 연말 특선 디너 2인, 카페 엘리제 2인 조식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객실 내 인터넷과 레크리에이션 센터 등도 무료다.

호텔의 시그니처 레스토랑인 맨해튼 그릴은 'Festive menu'를 선보인다. 최상급 아브루가 캐비어를 곁들인 자연산 오솔레 칵테일과 관자살을 곁들인 체스넛 차우더, 오븐 버터구이의 바닷가재와 한우 안심 스테이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벤트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또 Festive 메뉴 외에도 크리스마스 시즌에만 선보이는 럭셔리 7가지 코스 메뉴 또한 고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아울러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다양한 공연과 무료 음료 1잔, 특선 코스 메뉴 등이 제공되는 '크리스마스 스페셜 이벤트'가 진행된다.

/황재용기자 hsoul38@

30대 여성부터 정기적인 위암 검진 필요

내시경 이용하면 검진과 치료 동시 효과 가능

최근 국립암센터에 등록된 위암 환자 추이를 보면 전 연령대의 위암 발생률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40대 여성의 위암 발병률은 1999년에서 2011년 사이 22% 나 증가했다. 더욱이 위장 용종이 상황에 따라 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40대는 물론 30대 등 젊은 여성 층의 위암 조기 발견이 중요해졌다.

위암은 종양이 점막층과 점막하층에 분포하는 조기 위암과 점막하층을 지나 근육층 이상의 단계로 진행되는 진행성 위암으로 나뉜다. 조기 위암의 경우는 5년간 생존율이 100%이며 이에 따라 내시경 등의 검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위암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이가 빠른 미만형 위암도 빠른 치료를 한다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으며 시술도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유태호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건강증진센터 센터장은 "가족력이 있거나 평소 위암 징후가 있었다면 2년에 한 번씩은 위 내시경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metro entertainment E

“연기라는 옷장, 다양한 옷으로 채울래요”

‘패션왕’으로 스크린 찾은 안재현

즐겨보던 웹툰 원작, 악역에 끌려 출연
패션과 선악 대립, 이면적인 면에 중점
“행복하고 여유로운 배우 되고 싶어요”



“하루가 끝나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무언가 꿈속에 있는 것 같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행복해요.”

안재현(27)은 최근 떠오르고 있는 스타다. 모델 출신인 그는 지난해 ‘별에서 온 그대’와 올해 ‘너희들은 포위됐다’까지 두 편의 드라마에서 곱상한 외모로 여성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지난 6일 개봉한 영화 ‘패션왕’(감독 오기환)에서 안재현은 첫 스크린 연기에 도전했다. 주인공 우기명(주원)의 라이벌이자 기안고의 황태자로 불리는 김원호 역을 맡았다. 첫 영화를 마친 그는 “모든 게 즐겁고 재미있다”며 “꿈에서 깨고 싶지 않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 첫 영화라서 기분이 남다를 것 같다.

드라마나 영화나 둘 다 짜릿하다. 다만 영화가 조금 더 여유로운 것 같다. 기술시사와 언론시사로 영화를 두 번 봤는데 오들오들 떨면서 내 연기를 체크했다. 긴장됐지만 유쾌한 경험이었다.

◆ 원작 웹툰을 본 적 있나?

즐겨보던 웹툰이었다. 완결까지 봤다. 모델로 활동할 때라서 나도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다. 그런데 웹툰에 나오지 않아서 ‘아직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열심히 해야겠다는 자극을 주는 웹툰이었다(웃음).

◆ 독특한 웹툰이라서 영화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비슷한 생각이 있었다. 웹툰이 어떻게 영화로 그려질지 궁금했다. 영화를 촬영하면서 느낀 건 웹툰은 웹툰이고 영화는 영화라는 것이다. 싱크로율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데 굳이 원작과 비교하는 것보다는 영화적으로 각색된 부분을 본다면 마음 편하게 관람할 수 있을 것이다.

◆ 시나리오에서 만난 원호에게 끌린 점은 무엇이었나?

‘별에서 온 그대’의 윤재 이후 두 번째 고등학생 역할이었다. 윤재와 비슷하게 보이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있었다. 그런데 원호는 윤재와 달리 악역이라서 즐겁게 연기할 수 있었다. 원호는 부모님의 사랑이 용돈으로 대체되는 요즘 10대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하는 나름의 아픔이 있는 캐릭터라 좋았다. 이유 없이 나쁜 친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 원호를 연기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의상에 많이 신경 썼다. 우기명 역의 주원이 주로 난해하고 아름답지 않은 옷을 많이 입는데도 비주얼이 빛났다. 주원에게 밀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었다. 우기명과 김원호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영화가 공감을 못 살 것 같았다. 그리고 선과 악의 대립이 강조되는 만큼 사람들 앞에서는 착한 척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나쁘게 행동하는 이면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

◆ ‘패션왕’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원호가 ‘간지폭풍’을 타고 하늘을 나는 장면이다.

만족하는 장면이고 길이길이 남을 것 같다. 처음으로 와이어를 타고 연기했는데 생각보다 어려웠다. 하지만 나보다 보조출연자들이 더 힘들었을 것이다. 나는 ‘썩소’를 날리며 연기했지만 그들은 그런 나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연기해야 했기 때문이다(웃음).

◆ 원호와 아버지의 갈등이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은 아쉬움은 없나?

있다. 하지만 영화 전체를 본다면 지금 정도로 충분한 것 같다. 원호가 악역으로서 우기명이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준 것으로 충분하다. 우리 영화는 우기명의 성장 스토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호는 악역으로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 원호에게 애잔함을 느끼게 하기 보다는 그냥 악역으로 남는 것이 영화의 유쾌함과 잘 어울린다.

◆ “간지는 브랜드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라는 대사가 나온다. 모델로서 안재현은 브랜드 제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어릴 때는 비싼 걸 갖고 싶어 했다. 비싼 게 좋아보였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브랜드를 안 보게 된다. 브랜드 때문에 옷이 예뻐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다. 그런 친구(옷)를 데리고 오면 며칠 뒤에는 안 예뻐 보인다. 정말 예쁜 건 청바지에 흰 티셔츠처럼 심플하고 댄디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브랜드보다 예쁘고 적당한 가격의 옷을 고른다. 다만 가격이 비싼 건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자신만의 패션철학이 있다면?

패션은 예의라고 생각한다. 결혼식에 추리닝을 입고 갈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예의 다음에 기능성과 재미가 있다.

◆ 앞으로 어떤 배우가 되고 싶나?

영어 사전으로 따지면 이제 알파벳을 다 배운 단계다. 조금 더 완벽하게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긴다. 그리고 행복하고 여유로운 배우가 되고 싶다. 몰입할 수 있는 배우도 되고 싶다. 연기라는 옷장에 다양한 옷을 채우고 싶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라운드테이블(김민주)·디자인/박은지

“‘터닝포인트’는 가장 나다운 앨범”

미니 3집 앨범으로 컴백한 차세대 디바 알리



가수 알리가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IFC M-PUB 에서 열린 알리의 3번째 미니앨범 ‘터닝 포인트(TURNING POING)’ 쇼케이스에서 멋진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차세대 여성 보컬리스트 알리가 새 노래로 돌아왔다.

알리는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IFC몰 엠펍에서 미니 3집 ‘터닝포인트’ 쇼케이스를 개최하고 타이틀곡 ‘펑펑’을 비롯한 신곡을 공개했다.

이날 쇼케이스의 포문을 연 신곡 ‘노래는 거짓말을 못해요’는 알리의 깊은 감성이 묻어나는 발라드 곡이다. 그는 “이별을 겪고 난 뒤 노래를 부르면 감정이 묻어난다”며 “그래서 노래할 때는 거짓말을 못 한다”고 설명했다.

연이어 ‘그대여 함께해요’ 무대를 선보인 알리는 “애착이 가는 노래”라며 “프러포즈할 때 부르는 노래인데 내 결혼식에서도 이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수줍게 말했다.

데뷔 이래 첫 쇼케이스를 연 알리는 “걸그룹이 된 기분”이라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번 앨범을 준비했다. 그래서 앨범 제목도 ‘터닝포인트’다. 이제까지 발표한 음반 중 내 의견이 가장 많이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알리는 타이틀곡 ‘펑펑’을 열창했다. ‘펑펑’은 사랑했던 연인을 떠나보낸 한 여자가 그리움을 이기지 못해 펑펑 울고 있다는 내용의 노래다. 한층 더 깊어진 알리의 감성과 폭발적인 가창력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발라드다.

알리는 KBS2 ‘전설을 노래하다-불후의 명곡’에 출연해 선배들의 노래들을 재해석해 부르며 인기를 모았다. ‘선배들의 노래도 잘 부르는 실력파 여가수’라는 대중의 높은 기대치에 대해 그는 “내 목소리는 약간 쇳소리가 난다. 그걸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아닌 분도 있다. 그래서 듣는 분들 귀에 편안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힘을 많이 뺐다”고 말했다.

이번 앨범은 알리가 새 소속사에 둥지를 튼 뒤 처음 발표하는 음반이다. 그는 이번 앨범에 스스로의 모습 그대로를 담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알리는 “언제나 내게도 나만의 앨범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팬들도 내가 대중들 앞에서 내 노래를 부르길 바랐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 앨범에도 자작곡이 있었지만 다른 노래에는 내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모든 노래에 내 이야기를 담았다”며 새 앨범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알리의 팬들도 함께했다. 알리는 가수 지망생인 팬 한 명을 무대 위로 초대해 즉석해서 화음을 맞추며 노래를 불러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하이 수현 음원차트 ‘올킬’

소울 보컬과 청량한 음색의 조화

YG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유닛 하이 수현의 데뷔 싱글 ‘나는 달라’가 11일 자정 발매와 동시에 음원차트 ‘올킬’을 했다.

하이 수현의 ‘나는 달라’는 11일 오전 7시 기준으로 멜론·엠넷·벅스·올레·지니·몽키3·다음·네이버·소리바다 등 총 9개 차트 정상을 차지했다.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로 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나는 달라’는 R&B와 소울 장르의 노래다. 이하이의 힘있는 소울 보컬과 악동뮤지션 이수현의 깨끗하고 청량한 음색으로 각기 다른 매력을 잘 담아냈다. 같은 소속사 가수 바비가 피처링에 참여해 위트 있는 가사와 자연스러운 플로우의 랩핑으로 흥겨움을 배가시켰다.

‘나는 달라’는 에픽하이의 ‘스포일러’, 위너의 ‘공허해’ 등을 작곡한 YG 전속 프로듀서 P.K와 태양의 ‘눈, 코, 입’에 참여한 레베카 존슨이 작곡했다. 이하이의 ‘1, 2, 3, 4’를 작사한 마스터 우와 피처링으로 참여한 바비가 작사를 담당했다.

한편 하이 수현은 음원 발표에 이어 뮤직비디오 공개와 방송 출연 등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학철기자 kimc0604@



김범수 ‘컴백쇼’로 신곡 공개

3년 만의 정규 8집 앨범… 다양한 변화 시도

가수 김범수(사진)가 오는 21일 자정 정규 8집 앨범을 발매한다. 엠넷에서 단독으로 방송하는 ‘김범수 컴백쇼’로 컴백 신호탄을 쏘아 올린다.

‘김범수 컴백쇼’는 앨범 발매보다 앞선 오는 14일 오후 7시 서울 상암동 CJ E&M 멀티스튜디오에서 녹화로 진행된다. 앨범 발매보다 먼저 관객들에게 음원을 공개하는 자리로 극비리에 녹화될 예정이다. 음원 발매 전날인 20일 밤 11시 엠넷에서 방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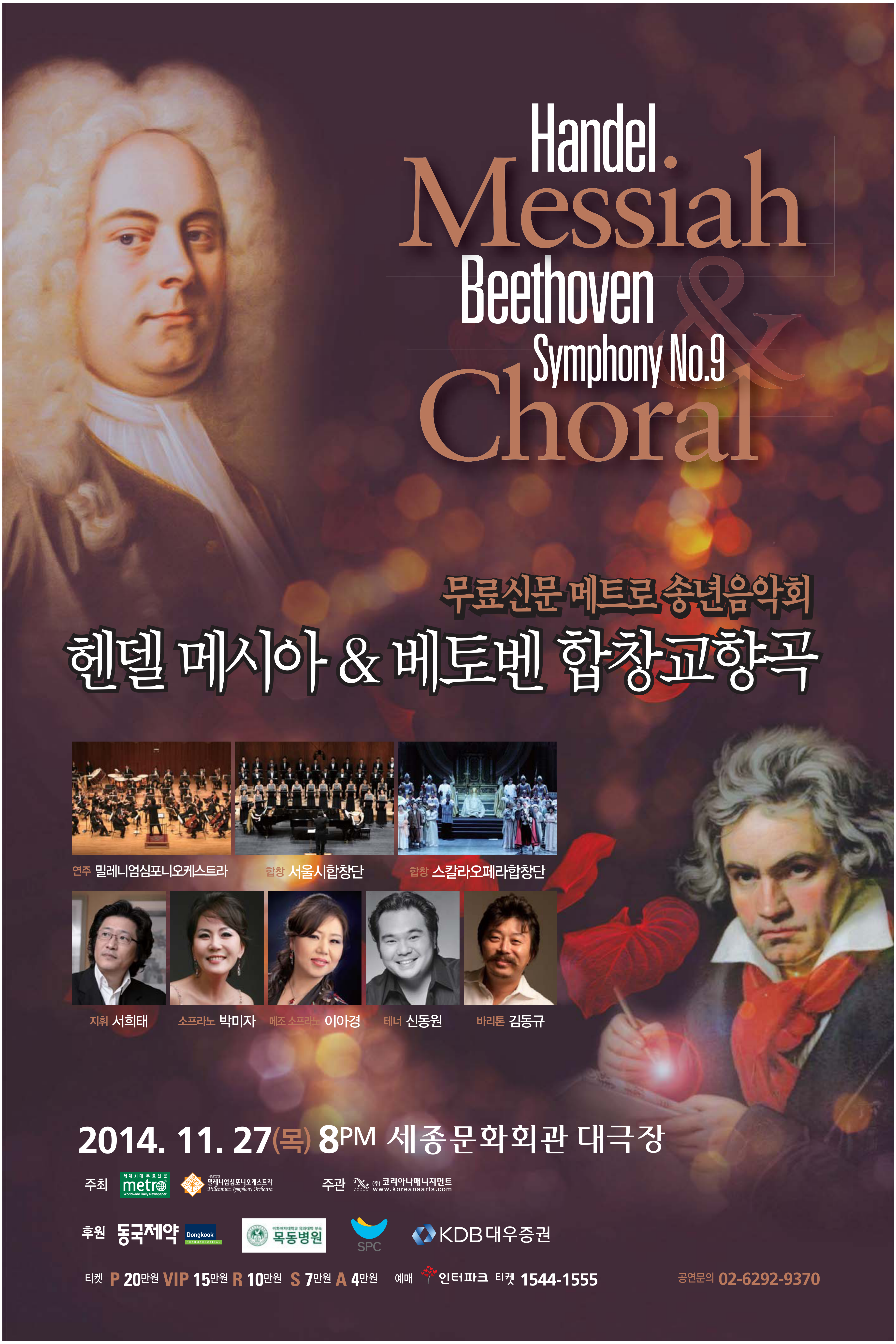
김범수는 ‘김범수 컴백쇼’를 통해 새 정규앨범 활동의 포문을 열고 팬들에게 신곡 무대를 최초로 선보인다. 이번 정규앨범에서는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다. 직접 앨범 프로듀싱까지 했다.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김범수가 심혈을 기울여 약 3년 만에 발매하는 정규앨범인 만큼 ‘컴백쇼’ 역시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 밤낮없이 공연 구상과 밴드 연습에 몰두하고 있다”며 “김범수의 색다른 모습이 담긴 신곡과 새로운 무대를 많이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김범수는 정규 8집 앨범 발매와 함께 본격적인 방송활동을 시작한다. 서울·대구·광주·부산 등 각 지역에서 콘서트도 개최할 계획이다.

/장병호기자 solanin@




Handel
Messiah
Beethoven
Symphony No.9
&
Choral
무료신문 메트로 송년음악회
헨델 메시아 & 베토벤 합창교향곡
연주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합창 서울시합창단
합창 스칼라오페라합창단
지휘 서희태
소프라노 박미자
메조 소프라노 이아경
테너 신동원
바리톤 김동규
2014. 11. 27(목) 8PM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세계최대 무료신문 metro Worldwide Daily Newspaper
사단법인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Millennium Symphony Orchestra
주관 (주) 코리아나매니지먼트 www.koreanaarts.com
후원 동국제약 Dongkook PHARMACEUTICAL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SPC
KDB대우증권
티켓 P 20만원 VIP 15만원 R 10만원 S 7만원 A 4만원
예매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공연문의 02-6292-9370

"소극적인 플레이? 그건 불가능"

tvN '더 지니어스' 시즌3 일반인 참가자가 밝히는 뒷이야기

tvN '더 지니어스'는 지난해 첫 시즌 시작 후 방송마다 화제를 몰고 다니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방송 중인 세 번째 시즌 '더 지니어스: 블랙가넷' (이하 '더 지니어스3')은 일반인 참가자를 공개 모집해 참가자 직업군에 다양성을 꾀했다. 그 결과 서울대 대학원생 김경훈, 프로 포커플레이어 김유현, 카이스트 재학생 오현민, 한의사 최연승이 방송에 참가하게 됐다. 제작진에 따르면 이들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카메라 테스트, 3차 최종면접과 합숙을 거쳐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더 지니어스3'의 플레이어가 됐다.

지난 6일 방송된 6회까지 김경훈을 제외한 나머지 3인이 살아남았다. 이들 일반인 참가자 4인은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회를 밝혔다.



tvN '더 지니어스: 블랙가넷'의 공개모집 4인이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회를 밝혔다. /CJ E&M제공

2회에 탈락한 김경훈은 이날 행사로 오랜만에 모습을 보였다. 그는 "프로그램의 팬으로서 스스로를 시험해 보고 싶어 지원했다"며 "필기시험을 0점 받은 것 같아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붙어서 참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개그맨 장동민과 함께 강력한 우승후보로 점쳐지는 오현민은 "나와 김유현 형은 필기시험 만점을 받은 걸로 알고 있다"며 "그 정도로 쉬웠다"고 밝혀 우승 후보다운 면모를 보였다.

'더 지니어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게임 이해도는 물론 상대를 속이는 능력도 뛰어나야 한다.

오현민은 "어릴 때부터 학원 빼먹으려고 거짓말을 잘 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김유현은 "나는 포커플레이어다. 거짓말하고 그것을 잡아내는 게 내 직업인데 '더 지니어스'에서는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됐다"고 밝혔다.

김유현은 장동민·오현민을 견제하며 고군분투했지만 현재까지 큰 활약상은 없었다. 이를 두고 최연승은 "오현민·김유현 씨를 두고 모차르트와 살리에리 같다는 댓글을 봤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그는 "방송에 웃기게 나온 내 얼굴이 인터넷에 '짤방(우스꽝스러운 사진을 가리키는 인터넷 용어)'으로 쓰이는 것을 봤다. 처음에는 방송에 나간다는 것이 조금 부담됐지만 이제는 이런 상황을 즐기게 됐다"고 말했다.

네 사람 모두 '더 지니어스' 시리즈를 좋아하는 시청자 입장에서 직접 방송에 뛰어들어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로 입장이 변했다. 앞선 시즌에 비해 참가자들이 소극적으로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오현민은 "예전에 방송으로 볼 때는 어떤 참가자가 좀 이상하게 보이면 '왜 저럴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 다르다"며 "촬영 시간은 6시간이 넘는데 방송은 약 1시간 정도다. 많은 부분이 생략되고 함축되다 보니 방송과 실제의 큰 차이를 알게됐고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유현은 "한 회만 보고 하는 게임이 아니다. 우승을 바라보고 임해야 하기 때문에 각 게임에 맞게 하는 것"이라며 "소극적이라기 보다는 각자의 게임 스타일이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연승은 "모두들 내가 방송에 나가면 홍진호(시즌1의 우승자)처럼 플레이할 것이라 예상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며 "시즌2의 유정현 씨처럼 플레이하고 싶었는데 뜻대로 되는 게 없다"고 말해 현장을 웃음 바다로 만들었다.

한편 매주 수요일 오후 11시에 방송되는 '더 지니어스'는 다양한 직업군을 대표하는 13명의 플레이어가 최종 우승을 두고 심리전과 두뇌 게임을 벌이는 리얼리티 쇼다. 현재까지 권주리, 김경훈, 강용석, 남휘종, 유수진, 김정훈이 탈락했으며 배우 하연주, 개그맨 장동민, 아나운서 신아영, 웹툰 작가 이종범, 김유현, 오현민, 최연승이 살아남아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김정은·김수로 부부로 안방에

'내 마음 반짝반짝'… 내년 1월 SBS 주말극 출연

배우 김정은(왼쪽 사진)과 김수로(오른쪽)가 SBS 새 주말극 '내 마음 반짝반짝'에서 부부가 된다. 각각 드라마 '울랄라 부부' '신사의 품격'(2012) 이후 3년 만의 안방극장 컴백이다.

'내 마음 반짝반짝'에서 김정은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와 두 동생을 위해 사는 전형적인 현모양처이자 '진심원조 치킨'의 첫째 딸 이순진 역을 맡았다. 김수로는 '진심원조 치킨'의 경쟁사인 '운탁치킨'의 냉혈한 대표로 등장한다.

김정은의 두 동생으로는 이태임과 남보라가 출연한다. 이태임은 외모는 물론 피아노까지 잘 치는 재원이지만 가난한 집안 사정과 첫사랑의 후유증으로 우울한 삶을 사는 '진심원조 치킨' 둘째 딸 이순수로 분한다. 현재 '사랑만 할래'에서 미혼모 역으로 활약 중인 남보라는 '진심원조 치킨'의 활발한 막내 이순정 역으로 등장한다.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비밀을 알게 된 뒤 복수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캐릭터다.

남보라와 인연을 맺는 두 남자로는 이필모와 오창석이 출연한다. 이필모는 '진심원조 치킨'의 악덕 인테리어 업자이자 '돌싱남' 장순철 역을, 오창석은 소탈한 재벌 2세 차도훈 역을 맡았다.

작품은 '며느리 전성시대' '솔약국집 아들들' '사랑을 믿어요' '결혼의 여신'을 집필한 조정선 작가와 '아내의 유혹' 오세강 감독이 함께 만든다. 서민의 음식인 치킨으로 얽힌 두 집안의 성공과 성장을 담는다. '미녀의 탄생' 후속작으로 내년 1월 첫 방송될 예정이다. /전효진기자

연말에도 '재회' 커플

이종석·'너목들' – 서인국·이성재 세 번째 만남

올해 방송가 키워드는 '재회'다. '별에서 온 그대'의 김수현·전지현을 시작으로 '운명처럼 널 사랑해'의 장혁·장나라, '조선 총잡이'의 이준기·남상미, '유혹'의 권상우·최지우 그리고 현재 방송 중인 SBS 월화극 '비밀의 문'의 한석규·이제훈까지 과거 작품에서 호흡을 맞췄던 커플들이 드라마에서 재회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2014년 연말 드라마까지 이어진다. SBS 수목극 '피노키오'의 이종석은 '너의 목소리가 들려'(이하 '너목들') 제작진과 다시 만났다. KBS2 수목극 '왕의 얼굴'의 서인국·이성재는 드라마·예능에 이어 세 번째 만남이다.

'피노키오'는 이종석과 '너목들'(2013)의 박혜련 작가·조수원 감독의 재회만으로도 화제다. '너목들'은 이종석을 배우로 각인시킨 작품이다. 흥행에서도 최종회 시청률 23.1%(닐슨코리아·전국 기준)을 기록했다. 당시 드라마 전체 최고 수치였다.

작품은 탄탄한 구성과 빠른 전개, 배우들의 호연이 어우러져 현재까지도 수작으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피노키오'가 '너목들' 흥행을 재현할 지 기대가 높은 이유다.

이종석은 "다른 작품을 하면서도 '너목들' 현장은 항상 생각났다"며 "작가·감독님이 정말 그리웠다"고 남다른 애정을 나타냈다. '피노키오'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춘들이 진정한 기자가 돼가는 치열한 과정을 담는다. 오는 12일 첫 방송된다.

'왕의 얼굴' 서인국과 이성재는 2012년 MBC 드라마 '아들 녀석들'과 지난해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로 먼저 만났다. '아들 녀석들'에서는 형제로 호흡을 맞췄고 '나 혼자 산다'를 통해서는 혼자 사는 남자들의 외로움을 공유한 바 있다.

이들 두 배우는 '왕의 얼굴'에서 부자(父子)로 출연한다. 서인국은 권력 암투를 이겨내고 왕이 되는 세자 광해군으로 분한다. 이성재는 광해군의 아버지 선조를 연기한다. 정통성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예민한 성격의 왕을 표현할 예정이다.

드라마의 한 관계자는 "여러 번 호흡을 맞춘 바 있는 이성재와 서인국은 눈빛만으로도 통한다"며 "더 섬세하고 긴장감 있는 심리극이 탄생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작품은 오는 19일 첫 방송된다. 광해의 성장과 한 여인을 두고 삼각관계에 놓이게 되는 아버지 선조와 아들 광해의 비극적인 사랑을 담는다.

/전효진기자 jeonhj89@



'피노키오'의 이종석



'왕의 얼굴'의 서인국·이성재



11일 오전 서울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영화 '덕수리 5형제'제작보고회에 참석한 배우 윤상현, 송새벽, 이아이, 황찬성, 김지민, 이광수, 전형준 감독. (왼쪽부터) /뉴시스

"송새벽·이광수, 친해지고 싶은 배우"

윤상현 '덕수리 5형제'로 스크린 컴백

배우 윤상현(사진)이 다음달 4일 개봉하는 영화 '덕수리 5형제'(감독 전형준)로 2년여 만에 스크린을 찾는다.

11일 오전 서울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는 전형준 감독과 주연 배우 윤상현, 송새벽, 이아이, 황찬성, 김지민, 이광수가 참석해 영화에 얽힌 에피소드들을 공개했다.

'덕수리 5형제'는 만나기만 하면 싸우기 일쑤인 원수 같은 다섯 형제가 부모님의 실종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합동수사작전을 벌인다는 내용의 코미디 영화. 윤상현은 다섯 형제들 중 융통성 없는 바른생활 사나이인 장남 수교 역을 맡았다.

이날 행사에서 윤상현은 "송새벽이라는 배우를 좋아해서 출연을 결심했다. 같이 연기하면서 친해지고 싶었다"고 출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시나리오도 재미있게 읽었다. 제목이 마음에 들었다"며 "이광수처럼 드라마에서는 만나기 힘든 배우들이 출연해 친해지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상현이 처음 시나리오를 받자마자 출연을 결심한 것은 아니었다. 전형준 감독은 "처음 시나리오를 배우들에게 건넸을 때 윤상현만 빼고 다들 선뜻 출연을 결정해줬다"고 말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전형준 감독에 따르면 윤상현은 장남 수교 역보다 송새벽이 연기한 차남 동수 역에 끌렸다.

윤상현은 "동수 캐릭터를 하고 싶었다. 그런데 감독님이 자꾸 나보고 첫째인 수교를 연기하라고 했다. 동수는 안 된다고 하시기에 고사하려고도 고민해지만 결국 출연을 결심했다"고 털어놨다.

기대했던 송새벽과의 호흡은 만족스러웠다. 윤상현은 "송새벽은 실제로도 동생으로 삼고 싶다"며 "술을 많이 마실수록 더 친해질 수 있는 친구다. 송새벽이 남동생이면 재미있을 것 같다. 정말 친동생 같은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윤상현과 이광수는 코믹한 폭로전으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윤상현은 "이광수는 처음에 호감이 있었다. 그런데 촬영장에서 유재석 흉내를 냈다. 마치 유재석처럼 여기저기 다 인사를 했다. 그래서 예의 바른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집도 가까우면서 촬영 끝난 뒤에는 연락 한 번 없었다"고 폭로했다. 이에 이광수는 "솔직히 형이 좋다. 그런데 과도하게 그러니까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고 해명했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김혁 '어떤 살인' 주인공

'예체능'으로 눈도장 찍은 신예… 엘리트 형사 연기

배우 김혁(사진)이 영화 '어떤 살인'(감독 안용훈)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

11일 소속사 행복한배우들은 "배우 김혁이 영화 '어떤 살인'의 주인공 김형사 역에 캐스팅됐다"고 전했다.

'어떤 살인'에서 김혁이 연기하는 주인공 김형사는 경찰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 신입형사다. 2% 부족해 보이지만 뛰어난 수사감각과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의 방향성과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인물이다.

김혁은 소속사를 통해 "'우리동네 예체능' 이후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연기자 본연의 모습이라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긴장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더욱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자 시나리오 연구에 매진했다. 많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관심과 기대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혁은 지난 2005년 MBC 시트콤 '논스톱5'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영화 '기담전설 2-소름', 연극 '너와 함께라면', tvN 드라마 '빠스켓볼'등에 출연했다. 지난해에는 KBS 2 예능 프로그램 '우리동네 예체능'의 농구편에 출연해 뛰어난 농구 실력과 훤칠한 외모로 주목을 받았다.

한편 '어떤 살인'은 지난달 19일 크랭크인했으며 내년 개봉을 목표로 촬영 중이다. /장병호기자



이승기·문채원의 2015년 첫 로맨스

'오늘의 연애' 촬영 끝내…"호흡 잘맞았다"

이승기, 문채원 주연의 로맨스 영화 '오늘의 연애'(감독 박진표)가 지난 9일 모든 촬영을 마쳤다.

'오늘의 연애'는 '썸' 타느라 사랑이 어려워진 오늘날의 남녀를 위한 로맨스를 그리는 영화다. 이승기는 퍼주기만 하는 연애를 해오다 늘 차이기만 한 초등학교 선생님 준수 역을, 문채원은 뛰어난 미모와 달리 걸쭉한 입담과 과격한 행동을 일삼는 기상캐스터 현우 역을 맡았다.

이승기는 이번 영화로 첫 스크린 연기에 도전한다. 그는 "정말 즐겁게 촬영했다. 박진표 감독님 이하 모든 배우들의 호흡이 잘 맞아서 아주 재미있고 좋은 영화가 나올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문채원은 "아직 끝났다는 실감이 안 난다. 내일 또 촬영장에 나와야 할 것 같다.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다. 영화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최고의 로맨스로 아주 재미있게 잘 나올 것 같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연출은 '너는 내 운명' '내 사랑 내 곁에' 등 멜로영화를 주로 연출해온 박진표 감독이 맡았다. '오늘의 연애'는 후반작업을 거쳐 내년 1월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액트 오브 킬링' 11월 라이브톡 선정

70여개 영화제 초청 화제의 다큐멘터리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CGV 아트하우스는 11월 '이동진의 라이브톡' 상영작으로 조슈아 오펜하이머 감독의 영화 '액트 오브 킬링'을 선정했다.

'액트 오브 킬링'은 1960년대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진 100만명 규모의 대학살을 소재로 하고 있다. 당시 실제 가해자들을 영화 속으로 불러들여 살인의 장면을 재연하게 한 다큐멘터리다.

영화는 평단의 큰 지지를 받고 있다. 제63회 베를린국제영화제 2관왕, 제67회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다큐멘터리 부문 수상 등 전 세계 70여개 영화제에 초청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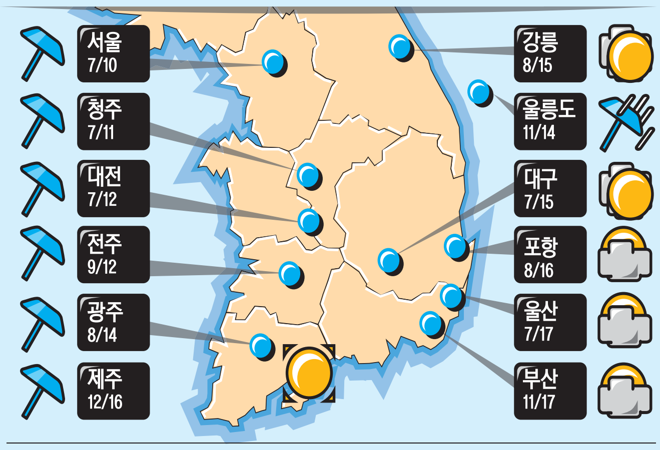
CGV 아트하우스의 '이동진의 라이브톡'은 영화 관람 후 이동진 영화평론가와 함께 작품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11월 행사는 오는 18일 오후 7시 CGV 아트하우스 압구정 전용관에서 진행되며 CGV 강변·구로·상암·오리·동수원·소풍·대전·대구·광주터미널·서면·목동에서 생중계로 만날 수 있다. 예매는 12일부터 가능하다.

CGV 아트하우스 극장팀 박지예 팀장은 "'액트 오브 킬링'은 상상을 뛰어넘는 발상을 통해 인간의 폭력성과 더불어 폭력에 대한 재현 방식을 성찰하는 충격적인 작품"이라며 "이번 라이브톡은 이동진 평론가 특유의 섬세한 통찰과 분석으로 다큐멘터리 화제작을 만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병호기자

날씨

11/12水 일출시각 07:08 일몰시각 17:24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건조하고 추운 날씨에는 안구건조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안약 사용은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야 하며 안구건조증에 좋은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감기 가능 지수
천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7	4	1					
6		2		4			7	3
1								
		3		2			5	
		7	5		6	4		
	5			8		7		
								4
7	4			1		9		8
					9	5	1	

	9	8				6		
		6			7			
2			5				8	
7		3		8	5		2	
	8						3	
	2		9	7		5		8
	7				1			9
			3			7		
		2				4	5	

스도쿠 정답

5	7	4	1	3	2	6	8	9
6	8	2	9	4	5	1	7	3
1	3	9	6	7	8	2	4	5
4	9	3	7	2	1	8	5	6
8	1	7	5	9	6	4	3	2
2	5	6	3	8	4	7	9	1
9	6	1	8	5	7	3	2	4
7	4	5	2	1	3	9	6	8
3	2	8	4	6	9	5	1	7

5	9	8	4	3	2	6	7	1
4	3	6	8	1	7	2	9	5
2	1	7	5	6	9	3	8	4
7	4	3	1	8	5	9	2	6
9	8	5	6	2	4	1	3	7
6	2	1	9	7	3	5	4	8
3	7	4	2	5	1	8	6	9
8	5	9	3	4	6	7	1	2
1	6	2	7	9	8	4	5	3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캣우먼

임경선 칼럼니스트
askcatwoman@empal.com

결혼상대, 안정과 열정 선택에 고민
결정은 자신이 하는것 의지가 문제

Q Hey 캣우먼!
서른 초반 직장여성인 저는 몇 번의 연애 끝에 최근 대기업에 다니는 괜찮은 조건의 남자와 선을 봤습니다. 솔직히 뜨겁게 사랑할 것 같진 않지만 이 남자라면 편안하게 살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와는 결혼을 전제로 주말에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일년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가 다시 찾아와 아직도 사랑한다 고백했습니다. 그는 제가 열렬하게 사랑했던 남자라 이별과정이 힘들었고 사실 아직 완전히 그를 잊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결혼상대로는 조건도 불안정적이고 주변에 여자도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저는 어느 쪽 남자를 선택해야 행복할까요? /김선생

A Hey 김선생!
선 본 남자와 결혼하면 원했던 안정적인 생활을 얻겠지만 삶이 공허할 것 같고 전 남자친구를 선택하면 당장은 행복해도 계속 불안하겠죠. 사랑으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 하지만 역시 결혼은 현실을 따져가며 해야 할 것 같고, 또 그러다가도 그런 생각을 하는 내 인생이 쓸쓸하게 느껴지죠. 열정과 안정, 두 마리 토끼를 다 갖기 참 쉽지가 않아요.

한데 지금 비교하는 '조건'과 '열정' 역시도 각자 유동적이에요. 지금 조건이 좋아 보여도 결혼 후 살다 보면 조건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때도 그 남자 곁을 묵묵히 지킬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전 연인과 다시 맺어져도 행여 그가 예전 버릇 못 버리면 기대했던 사랑에 배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나요?

선택의 기준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닌 '내 문제'죠. 이 사람하고 라면 그 어떤 일이 생겨도 같이 극복할 수 있겠다는 자신의 의지 문제 아닐까요? 이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남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다, 정도의 자연스런 마음이 우러나지 않는 한 둘 다 위태로워 보입니다. /캣우먼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공부 안하는 15살 진로가 걱정돼요
정돈된 집안분위기 만들면 도움될 것

Q 배두산산 여자 2000년 1월 23일 양력

친구가 공부안하고 속을 태우는 딸의 진로와 직업에 대하여 고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상담 의뢰하려고 합니다. 올해 15살이고 양력으로 1월 23일 점심 때라고 합니다. 엄마가 걱정을 몹시 하고 있으나 잔소리도 안 듣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는 제대로 입학할 수 있는 지와 앞으로의 진로와 직업은 어떤 계통으로 나가야 하는지 궁금하답니다. 그리고 공부 안 하는 것이 언제 철이 들어 스스로 공부를 하는지요? 또래의 친구들은 제 나름대로 공부를 잘 하는 것 같은데 딸아이 혼자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랍니다.

A 자연의 신비 이상으로 신비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인생의 신비입니다. 인생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순환하는데 11월이 지나면 날씨가 급하게 추워지겠지요. 추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추위 또한 받아들여야 하겠지요. 자연의 순리처럼 인생의 순리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람마다 일찍 꽃피는 사람이 있고 남들보다 늦게 피는 사람이 있는데 공부가 인생의 전부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는 이유는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각자가 가진 전인격적인 특성이 있는데 교육에는 인간적 특성과 그에 대한 적절한 소질 개발이 부족한 것을 살아가면서 헤쳐 나가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친구따님이 공부를 안 하는 것은 사주구조에서 상관운(傷官運:관을 치는 것)에 있으며 축진파(丑辰破)라는 공부의 오행이 휴지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서 인수(印綬:공부)운이 들어오고 어울려 다니는 또래 중에서 떨어져 나와 휩쓸려 다니는 것도 자제하게 됩니다. 딸아이가 몹시 답답함을 느끼고 있으므로 어머니가 신경써주어야 할 것은 집 안의 분위기를 환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우선 현관의 신발을 정리정돈하고 신지 않는 신발은 신발장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하여서 집안에 들어 올 복을 흐트러뜨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부엌인데, 부엌에 씻지 않은 그릇이 쌓여 있는 일이 없도록 하며 먹다 남은 반찬통들이나 그릇들이 싱크대 근처나 냉장고 안에 켜켜이 쌓아 있지 않도록 해야겠지요. 정돈된 집안과 밝은 빛은 안정된 기운과 풍요를 가져다주며 무엇보다 밖으로 나돌고 반목하던 식구들을 화합하게 하는 묘한 힘을 발휘합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1월 12일 (음 (윤)9월 20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쥐 **48년생** 작은 것은 자손에 돌려주라. **60년생** 기다리던 소식 듣는다. **72년생** 자녀의 잘못은 어물쩍 넘기지 말라. **84년생** 좋은 일엔 마땅히 앞장서야 한다.

소 **49년생** 잔칫집에 초대 받는다. **61년생**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할 것. **73년생** 힘을 모으면 물방울도 바위 뚫는다. **85년생** 꿈을 위해선 눈앞 달콤한 참아라.

호랑이 **50년생** 감정이 쏠리지 않도록~. **62년생** 꿈이 생겨서 열정이 넘친다. **74년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 **86년생** 민감한 일은 타협과 양보가 필요하다.

토끼 **51년생** 용장의 자세가 필요하다. **63년생** 기회가 왔을 때 발을 넓혀라. **75년생** 막혔던 일은 돌파구를 찾는다. **87년생** 직장인은 갈등을 푸는 해결사가 되어 보자.

용 **52년생** 아랫사람 잘 보듬어라. **64년생** 가는 날이 장날인 격이다. **76년생** 엄살 적당히 부리며 일단 관망만 하라. **88년생** 한번 바람맞은 사랑이 더 뜨거워진다.

뱀 **53년생** 심심할 정도로 편안하다. **65년생** 쓸데없는 걱정을 만들지 말라. **77년생** 재기를 노리는 사람은 성공의 길 열린다. **89년생** 새로운 일은 기꺼이 도전하라.

말 **42년생** 말로 가슴에 흠집 내지 말라. **54년생**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은 격이다. **66년생** 대안이 없는 비판은 삼가라. **78년생** 오랫동안 기다린 일은 성사 된다.

양 **43년생** 명예회복은 초심에 달렸다. **55년생** 충고도 길면 잔소리~. **67년생** 마음의 빈자리 채워주는 보석상자 생긴다. **79년생** 기대했던 일은 환호 대신 한숨이~.

원숭이 **44년생** 자녀와 돈거래 삼가라. **56년생** 순풍에 배를 띄우니 모든 게 순조롭다. **68년생** 상사와 이견 좁히는데 신경써라. **80년생** 보이지 않는 것도 소중하다.

닭 **45년생** 부부 동반외출이 즐겁다. **57년생** 일의 우선순의를 잘 정하라. **69년생** 엉켰던 일은 하나씩 정리가 된다. **81년생** 과음해서 민낯 드러내지 않도록~.

개 **46년생** 과음으로 인한 탈 조심~. **58년생** 좋은 일 뒤에 걱정도 생긴다. **70년생** 횡재수가 있으니 로또라도 사라. **82년생** 아픈 과거 지울 수 있는 기회가 온다.

돼지 **47년생** 꼼수는 안 통한다. **59년생** 주머니는 비어도 마음만은 부자로구나. **71년생** 특권 의식이 강하면 체면만 잃는다. **83년생** 상사의 빗나간 갑질에 부글~.

삼성, 프로야구 사상 첫 통합 4연패

삼성 라이온즈가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정규리그와 한국시리즈 통합 4연패의 신기록을 세웠다.

1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4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6차전에서 삼성은 넥센 히어로즈를 상대로 11-1 대승을 거뒀다.

2011년 정규리그와 한국시리즈를 동시에 재패한 이후 4년 동안 어느 팀도 삼성의 질주를 막지 못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전·후기리그를 없애고 단일 시즌제를 도입한 1989년 이후 양대리그를 시행했던 1999~2000년을 제외하고 4년 연속으로 정규리그와 한국시리즈 정상을 모두 정복한 팀은 삼성 라이온즈가 유일하다.

그 동안 해태 타이거즈(1996~1997년), 현대 유니콘스(2003~2004년), SK 와이번스(2007~2008년)가 2년 연속 한국시리즈 직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그러나 3연패조차 이르지 못했다. 한국시리즈에서는 해태 타이거즈가 전·후기리그제가 시행되던 시기를 포함해 1986~1989년 4년 연속 우승 트로피를 차지한 적 있다. 그런 당시에도 해태가 정규리그에서 1위 자리에 오른 것은 1988년(전·후기 모두 우승)뿐이었다.

삼성은 2011년부터 새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2년만 연속 우승을 해도 선수들의 목표 의식이 흐려지고 경쟁자들의 도전이 거세지기 십상이지만 철저한 시스템 구축으로 다른 팀과 같은 부침을 반복하지 않았다. 지난 4년 동안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보란 듯이 이겨내고 정상의 자리를 지켰다.



11일 오후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4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6차전에서 넥센 히어로즈르 상대로 11-1로 승리해 우승을 차지한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규리그·한국시리즈 4년 연속 우승…MVP는 나바로

이날 경기에서 삼성은 선발 윤성환의 호투와 야마이코 나바로의 3점 홈런으로 경기 초반부터 승세를 잡았다. 장단 11안타와 사사구 8개를 묶어 11점을 기록하며 넥센을 손쉽게 꺾었다.

나바로는 한국시리즈 최우수선수(MVP)로도 선정됐다. 이번 시리즈에서 24타수 8안타로 타율 0.333, 4홈런, 10타점을 기록하며 삼성의 공격을 주도했다. 4홈런은 2001년 한국시리즈에서 타이론 우즈(두산)가 수립한 최다 홈런과 타이 기록이다. 외국인 선수가 한국시리즈 MVP로 선정된 것은 200년 탐 퀸란(현대), 2001년 우즈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넥센은 이날 투수진이 사사구 8개를 남발한데다 야수들이 실책 3개를 저질러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반면 삼성은 상대 실책을 놓치지 않고 득점으로 연결시키며 완승을 일궈냈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프로야구 전적 11일

■잠실

삼성	004	003	301	11
넥센	000	100	000	1

△승 = 윤성환(2승) △패 = 오재영(1패) △홈런 = 나바로 4호(6회3점, 삼성)

김광현, MLB 진출 발목 잡히나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리고 있는 김광현(26)과 원소속팀 SK 와이번스가 포스팅 금액을 놓고 고심 중이다. 김광현의 유일한 미국 프로야구 진출 조건이었던 "자존심을 지킬 만큼의 포스팅 금액"의 적정선에 대한 고민 때문이다.

11일 오전 김광현의 영입 의사를 가진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구단이 써낸 최고 응찰액이 한국야구위원회(KBO)를 통해 소속 구단인 SK 와이번스에 전달됐다.

SK는 포스팅 금액을 확인한 뒤 임원진과 실무자가 모여 회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포스팅 금액이 김광현과 SK가 기대했던 것보다 낮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SK로부터 포스팅 금액을 전해 들은 김광현도 "무조건 수용해달라"는 의사를 밝히지 못했다.

김광현은 9년을 채워야 획득할 수 있는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아직 얻지 못했다. 구단 동의가 있어야 해외에 진출할 수 있다.

SK 관계자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간을 두고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 오늘 중으로 수용 여부 결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KBO가 SK에 제시한 '수용 여부 결정 기한'은 오는 14일 오후 6시까지다. /장병호기자 solanin@



LPGA 올해의 선수는?

박인비·루이스 각축… 남은 2경기서 결정

박인비(26·KB금융그룹·위 사진)와 스테이시 루이스(미국·아래)가 2014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올해의 선수를 놓고 각축전을 펼치고 있다. 승자는 남아있는 2개 대회에서 결정된다.

11일 현재 LPGA 투어 롤렉스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 부문에서는 스테이시 루이스가 229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다. 박인비는 12점 차이인 217점으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아직 누가 올해의 선수가 될지는 예측하기 이른 상황이다.

이번 시즌은 2개 대회가 남았다. 시즌 마지막 경기인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 (20일·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과 총상금 100만 달러가 걸린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 (13일·멕시코시티) 대회이다. 박인비와 루이스는 남은 2개 대회에 모두 출전할 예정이다.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하면 올해의 선수 포인트 30점, 준우승하면 12점을 받기 때문에 박인비로서는 얼마든지 루이스를 추월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지난 시즌에는 박인비가 1위를 했다. 루이스는 2012년에 이 부문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올핸 과연 누가 타이틀을 가져 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상금왕 부문도 아직 확정하기에는 이르다.

루이스는 현재 249만2483 달러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박인비가 213만4415 달러로 바짝 붙어 있다.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에는 우승 상금 20만 달러가,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에는 우승 상금 50만 달러가 걸려 있어 결과에 따라 상금 1위가 결정된다.

/김학철기자 kimc0604@

호날두, 득점왕 최우수 선수 등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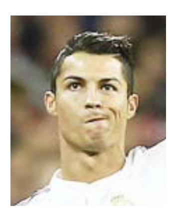
트로피는 다다익선 "내년에 또 상 받았으면"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사진)가 11일(한국시간) 마드리드에서 '피치치 트로피'를 수상했다.

피치치 트로피는 스페인의 스포츠전문지인 마르카가 매년 프리메라리가 최고 득점자에게 주는 상이다. 호날두는 지난 시즌 31골을 넣어 이 상의 주인공이 됐다. 호날두는 이번 수상과 함께 지난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친 최우수 선수에게 주어지는 '알프레도 디 스테파노 트로피'도 함께 받았다.

호날두는 지난 시즌 유럽 무대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에게 주는 '유러피언 골든 부트'를 지난 6일 수상한 바 있다. 이날 두 개의 상을 독식하며 명실상부 유럽 최고의 골잡이로 인정받았다.

이번 시즌 정규리그에서 18골로 득점 선두를 달리는 호날두는 이날 "내년에도 또 상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욕심을 드러냈다. 레알 마드리드의 전설적인 골잡이 알프레도 디 스테파노를 기리는 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디 스테파노의 경기 비디오를 보면서 정말 놀라운 선수



라는 생각을 했다"며 "그와 연결되는 것은 큰 영광이자 자극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피치치 트로피' 시상식에서 "아마도 지금이 전성기일 수도 있지만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팀이 잘하고 있는 게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시즌 프리메라리가 득점 선두는 호날두가 18골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다. 바르셀로나의 네이마르와 메시가 각각 10골, 7골로 뒤를 잇고 있다. 호날두가 내년 1월 있을 FIFA 발롱도르 선정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김학철기자

프로배구 전적 11일

KGC인삼공사	0	3	현대건설
삼성화재	3	1	한국전력

프로농구 전적 11일

KCC	11	20	19	19	**69**
LG	25	15	21	27	**88**


UNIVERSIADE
GWANGJU 2015
FISU
2015 GWANGJU
SUMMER UNIVERSIADE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Light Up Tomorrow
창조의 빛 미래의 빛
UNIVERSIADE GWANGJU 2015
2015 GWANGJU SUMMER UNIVERSIADE
Dates : July 3rd ~ 14th, 2015(12days)
Venues : Gwangju World Cup Stadium and other stadiums
기간 : 2015. 7. 3 ~ 14(12일간)
장소 : 광주 및 인근 시·군 경기장
Suzy (Promotional Ambassador of 2015 Gwangju Universiade)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홍보대사 - 수지
Global Premium Partner
SK C&C
SK telecom
KIA